

2026 대만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8
가. 정부 현황	08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09
3. 주요 이슈 Pick	14
가. (경제·산업) 경쟁우위 유지·확보 위한 반도체·AI 육성·지원에 총력	14
나. (에너지안보) 에너지 전환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와 전력난 우려 공존	15
다. (사회)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	16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8
가. 시장 특징	18
나. 무역	20
다. 산업	28
라. 투자	29
2. 유망 산업	33
가. 반도체	33
나. 에너지	34
3. 협력 기회	37
가. 통상	37
나. 프로젝트	37
다. 공급망	38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1
2. 진출전략	43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51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54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56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7

A stylized world map composed of small white dots on a dark blue background, spanning the entire page. The map is centered and shows the outlines of the contin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8
3. 주요 이슈 Pick	14

I 진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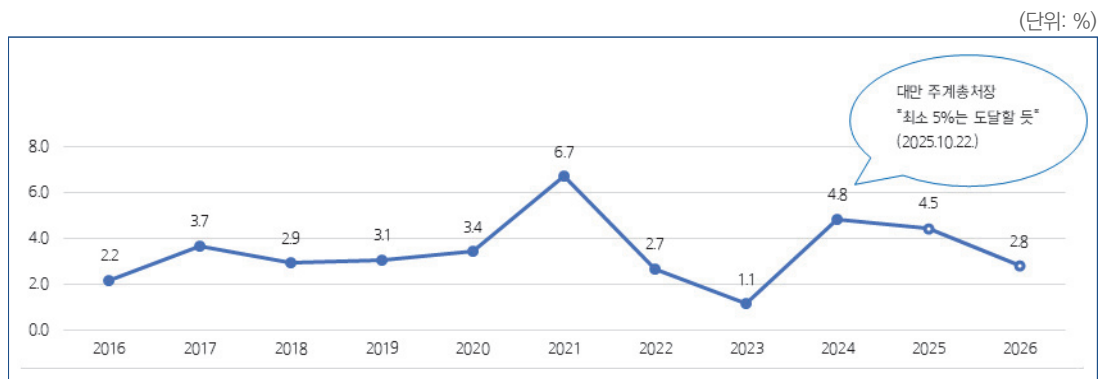


1. 경제 환경

□ 경제 전망('25년 대비 '하락')

- ('25년) 미국 관세정책 관련 사전 재고 비축 러시로 반도체·전자통신제품 위주로 수출이 급증, 관련 업종의 투자활동도 활발히 전개된 데 힘입어 당초 4%대 예상과 달리 5%대 성장 전망
- ('26년) 수출·민간투자 부문의 성장세 둔화가 전체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쳐 2%대 성장 전망

〈대만 경제 성장 동향〉



주: '25~'26년은 전망치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25년 8월 15일)

□ '26년 호재 요인

- 글로벌 AI 수요 지속 확대 전망*은 수출 부문의 하방압력을 일정 부분 상쇄 예상
* '26~'35년 글로벌 AI 서버 시장 규모 연평균 35.2% 성장을 기록 전망(Research Nester, '25년 8월 15일)
-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관망세를 보이던 소비 심리도 개선되면서 민간소비 부문 성장세가 반등 전망

□ '26년 부진 요인

- 미국 관세정책 관련 사전 재고 비축 수요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며 수출 성장세를 제한
- 대만달러 평가절상,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는 수출기업 이익 감소로 이어져 투자 축소, 고용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23.6	23.6	23.5	23.3	23.3	23.4	23.4	23.3
명목 GDP	십억 달러	613.5	676.9	777.1	765.5	757.3	796.9	889.3	956.2
1인당 명목 GDP	달러	25,998	28,705	33,111	32,827	32,442	34,040	38,066	41,019
실질 성장률	%	3.1	3.4	6.7	2.7	1.1	4.8	4.5	2.8
실업률	%	3.7	3.9	4.0	3.7	3.5	3.4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0.6	-0.2	2.0	3.0	2.5	2.2	1.8	1.6
재정수지(GDP 대비)	%	0.1	-1.4	-0.7	0.3	-0.9	-1.9	-	-
총 수출	백만 달러	329,166	345,136	446,385	479,424	432,429	474,932	589,206	602,085
(對韓 수출)	백만 달러	16,917	15,141	20,141	22,178	18,203	20,791	-	-
총 수입	백만 달러	285,679	286,175	381,985	428,108	351,661	394,379	469,467	473,370
(對韓 수입)	백만 달러	17,741	20,611	30,640	34,262	28,415	43,704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43,487	58,961	64,400	51,316	80,768	80,553	119,739	128,715
경상수지	백만 달러	68,156	98,093	117,994	101,445	105,810	112,735	-	-
환율(연평균)	TW\$/US\$	30.9	29.6	28.0	29.8	31.2	32.1	30.8	29.9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10.2	177.1	184.6	150.1	266.1	485.9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12.9	92.7	75.9	133.4	112.8	81.6	-	-

주: '25-'26년은 전망치. 전망치는 행정원 주계총처 '25년 8월 15일 발표 기준

자료: 재정수지는 대만 재정부 국고서('25년 10월 28일 조회), 수출입은 대만 재정부 관무서('25년 10월 28일 조회), 경상수지는 대만 중앙은행('25년 10월 28일 조회), 투자는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회('25년 10월 28일 조회), 기타 항목은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25년 8월 15일)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대만 중앙행정기관(행정원 주계총처) 공식 전망치('25년 8월 15일) 기준, '25년 4.5%에서 '26년 2.8%로 둔화 예상
 - '25년은 상반기 성장률이 6.8%를 기록, 하반기에도 예상과 달리 호조가 이어져* 연간 5% 상회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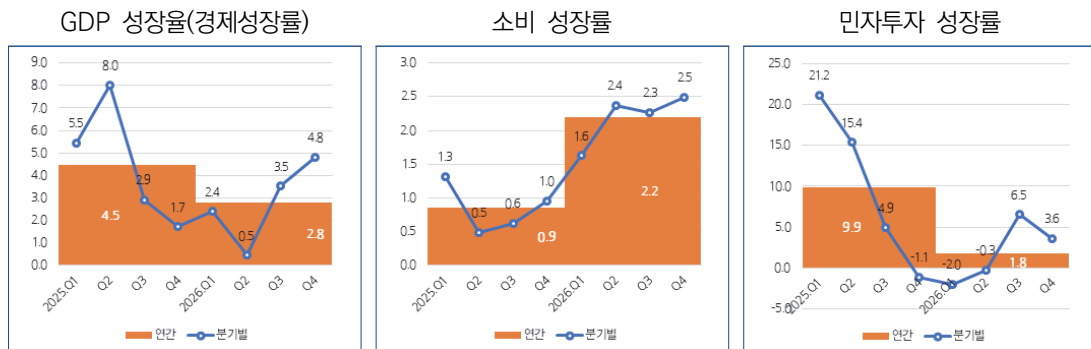
* '25년 10월 31일 발표 잠정치 기준, 3분기 7.6% 성장(전망치를 4.7%포인트 상회)

- (소비)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증시 위축으로 관망 심리가 확산되며 '25년 민간소비 성장률은 1% 하회 예상
 - '26년에는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도 개선돼 성장세가 소폭 상승 전망
- (민간투자) '25년에는 반도체·전자통신제품 분야 수출 호조로 기업의 투자활동도 활발 전개
 - '26년에는 수출 둔화가 투자 성장세를 제한 예상*

* 반도체 첨단 공정 투자 지속, 산업계의 스마트화·저탄소화 흐름은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주요국 무역정책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함

〈대만 GDP·소비·민간투자 성장 전망(분기별)〉

(단위: %)



주: '25년 3분기부터는 전망치 기준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25년 8월 15일)

- (산업생산) AI 수요에 힘입어 △ 컴퓨터 제조 △ PCB 조립 △ 전자집적회로(반도체) 제조 분야의 제조업 생산지수가 타 업종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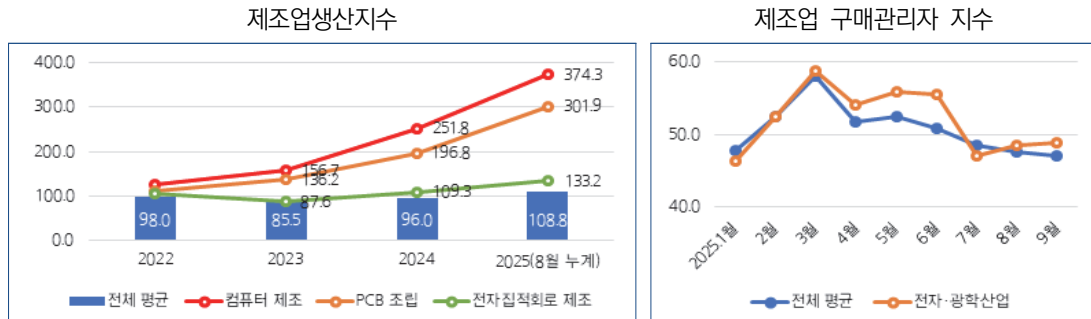
* 기계·금속·화학 등 전통 제조업 분야는 생산지수가 평균을 하회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냄

- 한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경기선행지표 격)는 7월 들어 위축 국면(50% 하회)에 진입*

* 미국 상호관세 최종 세율,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국가안보조사 항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제조업계의 관망 심리가 짙어진 것으로 분석됨

〈주요 업종별 제조업생산지수 동향〉

(단위: '21년=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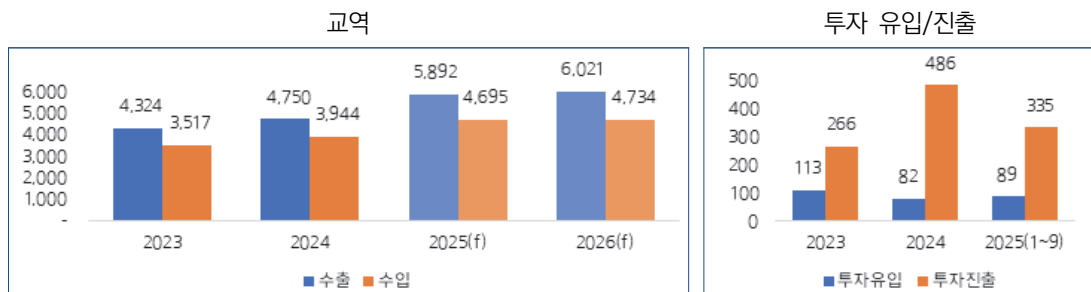


자료: 대만 경제부 통계처('25년 10월 28일 조회), 대만 국가발전위원회('25년 10월 28일 조회)

- (대외 교역) '25년에는 수출입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 예상. 수출은 24.0% 성장하며 5,0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하고 무역수지는 1,000억 달러를 상회 관측
 - '26년 수출은 6,00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되나 성장세는 한 자릿수로 둔화 전망, 수입 증가율은 1% 미만에 그쳐 무역수지가 1,200억 달러대로 확대 예상
 - * 대만 경제부 장관, “'25년에 수출 6,000억 달러 돌파 가능성도 있어”(‘25년 10월 22일)
- (투자 유입)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 기반 해상풍력 분야 투자 유입 확대
 - '25년 9월 누계 기준 총 89억 달러 가운데 덴마크 해상풍력 개발업체인 오스테드(20억 2,061만 달러), CIP(6억 7,151만 달러)가 30.3%를 기여
- (투자 진출)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對미 투자 활발
 - 우회투자 경로인 카리브해 영국령을 제외하면 미국이 사실상 1위 투자대상국임('25년 9월 누계 기준 전체의 9.9% 비중)
 - '52년 투자 통계 작성 이래 누계 기준, 對미 투자의 53.3%가 '23~'25년 9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짐

〈대만 교역·투자 동향(연간)〉

(단위: US\$ 억)



주: '25~'26년 교역은 전망치. 전망치는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25년 8월 15일)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25년 10월 28일 조회),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사('25년 10월 28일)

2. 정치(정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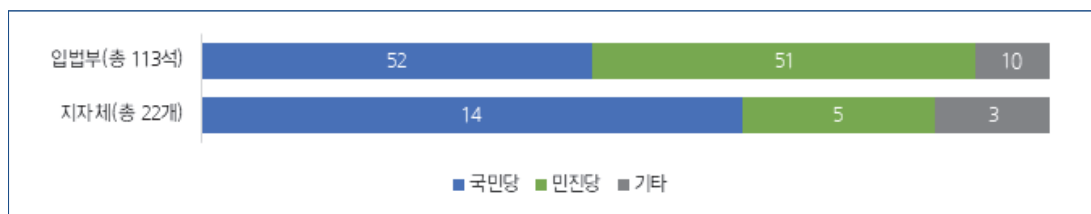
- 여소야대 정국 속 '26년 11월경 라이칭더 민진당 정권 중간평가 격인 지방선거 실시
- 반도체·AI 중심 '5대 신뢰산업' 육성·지원과 함께 핵심기술 유출 방지 관리감독 강화
- '2050탄소중립' 추진력 강화에 따라 대만형 CBAM도 시범도입 추진

가. 정부 현황

□ 오권분립 총통(대통령)제, 여소야대 정국

- △ 행정원 △ 입법원 △ 사법원 △ 고시원* △ 감찰원**으로 권력 분산
 - * 공무원 고시·임용·자격심사·근무성적평정·승진·포상·보상·퇴직 등을 관장
 - ** 공무원 직무감찰·징계요구·탄핵, 회계감사권을 행사
- 행정원·감찰원 수장은 총통 지명·입법부 동의로, 사법원·고시원 수장은 총통 지명·감찰원 동의로 임명
- 현 정부수반은 제15대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으로 '24년 5월 20일 임기 시작
 - 임기는 4년이며 선거로 한 번 연임 가능
 -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을 띠며, '26년 11월 하순경(라이칭더 총통 임기 3년차) 지방선거 실시 예정*
 - * 현재 총 22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야당(국민당) 소속이 14명, 여당(민진당) 5명, 제2야당(민중당) 2명, 무소속 1명 순
- 입법원(현재, 제11대)은 총 113석 중 여당(민진당) 51석, 제1야당(국민당) 52석, 제2야당(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으로 여소야대 국면
 - 입법위원회도 총통과 함께 선출*되나, 임기는 총통보다 약 4개월 빨리 시작*
 - * 4년 임기가 끝나는 1월 중순경 동시 투표. 입법위원회는 그 해 2월 1일부터 임기 시작(총통은 그 해 5월 20일부터 시작)

〈대만의 정치 지형〉



자료: 대만 입법원,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주요 정책) 5대 신뢰산업과 2050탄소중립

- 5대 신뢰산업은 △ 반도체 △ AI △ 통신 △ 보안·감시 △ 방위(군수) 분야를 의미
 - '26년 예산 규모는 총 287억 대만달러이며, 반도체와 AI 분야에 전체의 82.9% 예산을 집중 투입 방침
 - 반도체 예산 155억 대만달러 가운데 99억은 경제부가 집행하며, △ 국내 중소기업 IC 설계 지원 △ 핵심 칩 및 이종집적기술 연구개발 △ 반도체 장비 산업 공급망 육성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임
 - AI 예산 83억 대만달러 가운데 57억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집행하며 △ AI 컴퓨팅 센터 구축 △ 차세대 고속 연산 메인프레임 및 AI 평가 환경 구축 사업 등에 사용 예정

'5대 신뢰산업 추진방안'의 비전과 추진전략

산업 (2026년 예산*)	달성 목표	추진전략
반도체 (155억 대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지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운드리·후공정 1위, 팹리스 2위 • 반도체 소재·장비 생산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 528억 대만달러, 800억 대만달러 도달 • '28년까지 반도체 산업 규모 2조 6,600억 대만 달러 추가 확대 및 고임금 일자리 25만 개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생산공정·패키징 기술 개발 • 소재·장비 분야의 '원팀' 결성 • 팹리스 분야 개발 역량 강화 및 규모화 추진 •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AI (83억 대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디지털 경제 산업(AI, SW, 사이버보안 등) 규모 1조 대만달러 돌파 • 20만 명 AI 인재 양성 • AI 기술 보급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경제 산업 50%, 제조업 30% 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도입 활용 촉진 • AI 인재 양성(산학협력 기반 석·박사 배출, AI 분야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확대 등) • AI 관련 기업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 AI 개발·혁신 역량 강화 • AI 주권 기반 공고화(AI 기본법, 산업용 AI 가이드라인 제정 등)
통신 (36억 대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자체 개발 및 관련 인프라 자급률 80% 도달 • 차세대(비윤드 5G) 저궤도 통신위성 '27년 첫 발사 • 통신 분야 핵심부품 자급률 80% 도달 • 위성통신 네트워크 통합기술 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대 이동통신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대외 협력 추진 • 차세대 통신위성과 지상설비 개발 • 위성 분야 버티컬 서비스 발전 가속화
보안·감시 (8억 대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보안·보안감시 산업 규모 각각 1,000억 대만달러, 3,000억 대만달러 돌파 • 아시아 최대 사이버보안 전시회 개최 • 고부가가치 보안감시 HW 발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감시 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스마트화 촉진 • 사이버보안 관련 차세대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완성도 제고 • 반도체·방위 등 핵심산업 대상 사이버보안 회복 탄력성 강화

산업 (2026년 예산*)	달성 목표	추진전략
방위(군수) (5억 대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기 공급망 구축 • 무인기 산업 규모 확대 * '28년까지 300억 대만달러 도달 • 해군함정 신규 건조 * '28년까지 165척 누적 납품 • 항공우주 핵심소재 생산 역량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기 시스템 통합 역량 확보 • 항공우주 관련 기술·제품과 군용기·무인선·수중무인기 분야의 자체 기술력 확보

주: '26년 예산안 기준

자료: 대만 행정원('24년 9월 16일)

• 2050탄소중립

- '25년 1월, 탄소감축 중간 목표를 개정*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12개 핵심전략의 추진력 강화를 도모 중
- * ('30년 감축 목표) 26~30%로 상향
- * (중간 목표 구간 신설) '32년 30~34%, '35년 36~40%
- 12개 핵심전략의 '26년 예산은 총 750억 대만달러. 이 가운데 전력시스템·에너지저장 분야에 222억, 에너지 절약 분야에 210억, 풍력·태양광 분야에 139억을 집중 편성함

2050탄소중립을 위한 12개 핵심전략별 주요 달성 목표

항목	달성 목표
① 풍력·태양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풍력 : ('25년) 5.6GW → ('30년) 13.1GW → ('50년) 40~55GW • 태양광 : ('25년) 20GW → ('30년) 31GW → ('50년) 40~80GW * 누적 설치 기준
② 미래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열발전 : ('25년) 20MW → ('30년) 56~192MW → ('50년) 3~6.2GW • 바이오매스 : ('25년) 778MW → ('30년) 805~1,329MW → ('50년) 1.4~1.8GW • 해양에너지 : ('25년) 0~0.1MW → ('30년) 0.1~1MW → ('50년) 1.3~7.5GW * 누적 설치 기준
③ 수소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91MW → ('30년) 891MW → ('50년) 7.3~9.5GW * 누적 설치 기준
④ 전력시스템·에너지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방향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 ('24년) 300만 → ('30년) 600만 가구 • 에너지저장시스템 : ('25년) 1,500MW → ('30년) 5,500MW * 누적 설치 기준
⑤ 에너지 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부문 : △대용량 전력사용자의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률 60% 달성 △고효율 저탄소 공정·설비 도입 - 상업 부문 : △LED 조명 100% 전환 △녹색건축물 매년 450건 신규 조성 - 주택 부문 : △에어컨·냉장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3등급으로 조정(현행 1~5등급) △녹색건축물 매년 350건 신규 조성

항목	달성 목표
⑥ 이동수단의 전기동력화 및 무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 시내버스, 공무원 차량의 전기차 비율 100% 달성 • '40년 : 자동차, 오토바이의 전기차 판매비율 100% 달성
⑦ 탄소 포집·저장·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US 기술 기반 탄소감축량, '30년까지 176~460만 톤 달성
⑧자 원순환·제로웨이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기준 △재생펄릿의 엔지니어링 재료화 비율 70% △화학물질 폐액의 고부가가치 재료화 45% △산업폐기물의 연료화 80% △유기성 폐기물의 비료화 촉진
⑨ 자연 기반 탄소흡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년 탄소흡수량 1,000만 톤 추가
⑩ 저탄소 생활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저탄소생활 인지도* 90% △저탄소생활 실천지수** 80점 달성 * 2점 척도 기준(저탄소생활을 안다, 모른다) 평가 기준 ** 5점 척도 기준(저탄소생활을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실천한다 또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⑪ 녹색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년까지 모든 상장기업 대상 온실가스 산정·검증 완료 및 관련 정보 대외 공개
⑫ 정의로운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저탄소 역량 강화 지원 •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구조적 실업문제 최소화 • 대화·소통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 이익공유체계 도입

자료: 대만 국가발전위원회('23년 4월 21일)

□ (규제) 핵심기술 유출 방지 위한 관리감독 강화

- '23년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총 32개 항목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
- 핵심기술 유출 행위가 경제스파이죄에 해당할 경우, '국가안보법'에 따라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 500만~1억 대만달러의 벌금으로 병과 처벌할 수 있음

* 실제로 '25년 TSMC 2나노 기술 유출을 시도한 엔지니어 3인에 대해 대만 검찰은 각각 징역 7년, 9년, 14년을 구형함

국가 핵심기술 지정 항목

관리감독부처 (지정 항목수)	지정 항목
국방부(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용 탄소섬유 복합재료 기술 • 군용 탄소 및 탄소고온 내삭마 재료 기술 • 군용 신형 전파방해 방지 피아식별 기술 • 군용 마이크로웨이브·적외선·다중모드 탐색기 기술 • 군용 능동위상배열 탐지 기술, 램젯 엔진 기술
국가과학기술위원회(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 조종 기술 • 우주 표준 X-Band 영상 다운로드 기술 • 우주 표준 영상압축전자장치 기술 • 우주 표준 CMOS 이미지 센서 기술 • 우주 표준 광학 탑재체 시스템 설계·제조·통합 기술 • 우주 표준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기술 • 우주 표준 수동 반사면 안테나 기술 • 우주 표준 레이더 영상처리 기술 • 큐비트 설계 및 공정 기술 • 저온 반도체 칩 회로 설계 및 공정 • 소형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체 추진 시스템 설계·제조 기술 • 소형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체 비행 자세 판정·제어 기술
경제부(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나노 이하 공정 IC 제조기술·핵심가스·화학품 및 장비 기술 • 이종집적 패키징 기술(웨이퍼 레벨 패키징, 실리콘 포토닉스 통합 패키징 및 특수 필수재료·장비 기술) • 밀리터리파 질화갈륨 전력 증폭기 단일칩 마이크로파 집적회로의 칩 설계 기술 • 고주파 전력 증폭기용 질화갈륨 반도체 제조 기술 • 고전압 전력 소자용 탄화규소 반도체 제조 기술 • AI 컴퓨터용 고성능 칩 설계 기술 • 고대역폭·고밀도 칩렛 상호연결회로 설계 기술 • 2차 전지 셀(고에너지 밀도 및 고수명 단일 셀 설계·화학합성·제조기술)
디지털발전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칩 보안기술 • 포스트양자암호 보호기술 • 네트워크 능동방어기술
농업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품종 육성·번식·양식 기술(액체 균주 배양기술, 수산 단성 번식 기술) • 농업용 바이오칩 기술(농약 잔류물 검사기술, 동식물 병원체 검사 바이오칩 기술) • 농업시설 전문가 시스템 기술(작물 온실 및 양식 어업 수질 환경의 설계·운영·유지보수 관리 전문가 시스템 기술)

자료: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25년 3월 31일)

□ (ESG) 탄소부담금 징수 시작, 대만형 CBAM도 시범도입 추진

- 현지 대용량(연간 2만 5,000톤) 탄소배출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26년부터 첫 탄소부담금(톤당 기본요금 300대만달러. 조건부 우대요금 적용) 징수를 시작할 예정*

* TSMC의 경우, 우대요금 적용 기준 연간 10억 대만달러대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됨

- 향후 점진적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요율을 인상**할 방침임

* 현행, 연 배출량 2만 5,000톤 이상 → 5,000톤까지 점진 확대

** 현행, 톤당 기본요금 300대만달러 → '30년 이후 1,200~1,800대만달러대로 인상 고려

업종별 탄소부담금 징수 대상자 분포

(단위: 개, %)

순위	업종	사업장 수	비중(전체 대상자 대비)
1	반도체 제조업	115	23.9
2	화학원재료 제조업	71	14.7
3	철강 제조업	28	5.8
4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8	5.8
5	광학 재료·부품 제조업	27	5.6
6	전력 공급업	25	5.2
7	플라스틱·합성고무 원료 제조업	16	3.3
8	유리·유리제품 제조업	15	3.1
9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3	2.7
10	펄프·종이·판지 제조업	12	2.5

주: '23년 배출량 2만 5,000톤 이상 사업장 기준

자료: 대만 환경부 기후변천서 '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플랫폼'('25년 10월 28일 조회)

- 수입품과의 탄소배출 비용 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26년 상반기 중에는 '대만형 CBAM' 관련 법규도 완비할 예정
 - 시멘트*·철강** 품목을 우선 신고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시범시행할 방침임
 - * △ 시멘트 클링커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 알루미나 시멘트 △ 기타 수경성 시멘트 △ 소성 고령토·기타 고령토계열 점토 등 총 6종
 - ** 세부 품목 미정
 - 다만, 비용 부과 시점은 EU나 영국(각각 '27년, '28년 첫 납부 시작)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고탄소 업종을 중심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

3. 주요 이슈 Pick

가. (경제·산업) 경쟁우위 유지·확보 위한 반도체·AI 육성·지원에 총력

□ 반도체·AI 집중 육성 기조는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와 함께 기술·인재 경쟁에 영향

- 배경

- '26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5년 대비 9.9% 성장하며 8,000억 달러에 도달하고, AI 시장은 3,169억 달러로 29.8% 성장 예상*

*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 WSTS('25년 8월 4일), Statista('25년 3월)

- 대만은 TSMC를 필두로 글로벌 반도체 제조 허브로 자리매김
- 라이칭더 정부는 대만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유지·강화하면서, 반도체·ICT 제품 개발·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AI 시장 내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며 반도체·AI 분야에 재정 자원을 집중 투입**

* '25년, 세계 파운드리 시장 내 대만 점유율 78.6% 예상(대만반도체산업협회, '25년 6월)

** '26년 '5대 신뢰산업' 육성·지원 예산의 82.9% 비중

- 이슈 유망 사유와 기회

- 반도체·AI 산업 집중 지원 기조는 관련 시장의 중장기적 성장성을 뒷받침하고 외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
- 대만 반도체 산업의 회복탄력성 강화 요구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급망 다각화 수요와 틈새 협력기회를 창출
- '산업의 AI화, AI의 산업화'를 지향하는 정책 방향성은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AI 기반 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업종 내·업종 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극대화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대만 반도체·AI 산업의 고도화와 회복탄력성 강화는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 추진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도 밀접 연관
- 다만, 반도체·AI 분야의 핵심전략산업화로 신뢰·보안 중요성이 확대된 만큼 외국 기업에 요구하는 기술·보안 수준도 높아져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반도체·AI 등 첨단 분야로 인재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른 업종에서는 인재 확보 어려움이 커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나. (에너지안보) 에너지 전환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와 전력난 우려 공존

□ 에너지 공급안정 수요는 관련 부품·솔루션 시장을 확대, 반면 경쟁, 규제, 정치·정책 측면의 리스크는 상존

- 배경
 - 에너지 수요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2050탄소중립' 정책 관련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25년 탈원전에 돌입했고' '5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60~70% 달성을 목표로 설정'*
 - * '25년 8월 누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12.4%. 목표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됨
 - 반도체·AI 산업 발전은 대만 내 전력수요를 지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
 - * 대만 경제부는 현지 전력수요가 '25년 2,800억대kWh에서 '29년 3,000억kWh를 돌파 예상('25년 9월 26일)
 - 탈원전, 더딘 에너지 전환 속도, 전력수요 증가 전망으로 전력수급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음
- 이슈 유망 사유와 기회
 - 현지 에너지 정책 방향과 대만 주요 수출 기업들의 RE100 참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와 관련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촉진
 - 전력수요 확대 전망에 반해 대체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인 특성상 전력계통의 불안정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어 전력난 우려 해소에 역부족
 - 해상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장비, 에너지 저장·절약·관리 관련 설비와 솔루션 분야에서 협력·진출 기회를 확대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 첨단 기술과 ICT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수용성이 높아 스마트 그리드 등 신기술 기반 에너지 신산업 전개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
 -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이미 다수 진출해 있어 수주 경쟁이 치열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환경영향 평가 등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 정권교체 시 에너지 정책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장기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 산업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 (사회)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

□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감소는 자동화·헬스케어 시장 확대 기회와 내수 위축, 비용 상승 도전이 공존

• 배경

- 합계출산율은 '20년부터 1명을 하회 중('26년 0.87명 예상)
- 고령(65세 이상 기준) 인구비율은 '25년 20%를 상회(초고령사회 진입 기준)하기 시작했고 향후 지속 심화 전망
- 인구 감소*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감소** 추세
 - * '24년 2,340만 명 → '30년 2,300만 명 하회 예상
 - ** '24년 69.1% → '25년 68.4% 예상 → '26년 67.7% 예상(대만 국가발전위원회, 중위 추계 기준, '25년 10월 28일 조회)
- 정부는 고급인력 육성, 중고령자 재취업 촉진, 외국인 노동자 유치 확대 등 다각도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산업계의 인력난 호소는 여전

• 이슈 유망 사유와 기회

- 인구구조 변화는 산업 전반의 노동력 확보 문제와 시장 수요 변화로 이어짐
- 이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스마트화 솔루션 도입과 전문가·기능인 유치 수요를 확대하고, 헬스케어·시니어케어 산업 발전을 촉진 기대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IT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새로운 기술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 스마트 기술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확장하는 데 용이
- 현지 문화, 비즈니스 관행, 규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할 경우 시장 안착에 어려우므로 현지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장기적인 총 인구 감소는 전반적인 내수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노동력 부족은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Ⅱ.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8
2. 유망 산업	33
3. 협력 기회	37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시장 규모는 작지만 테스트마켓이자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로서 전략적 가치 보유
- '25년 연간 교역규모 1조 달러 돌파 예상. 한국은 7위 수출대상국이자 2위 수입대상국
- 교역 대비 상호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 개별 기업 단위의 투자 계획에 따라 크게 변동
- 핵심전략산업인 반도체는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25년 생산액 6조 대만달러 돌파 예상

가. 시장 특징

□ 주요 특징

- 점진적·중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선호
 -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사업제휴 시 시장성 검토기간이 긴 편
 - 소량 구매로 시작해 시장반응을 점검하며 점진적으로 거래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을 선호
- 가격경쟁력 중시
 -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으나 현지에서 한국 제품의 시장 지위는 미국·일본·유럽 주요국 대비 다소 낮은 편이며 대만과는 동등하거나 소폭 우위로 인식됨
 - 현지 물가 수준과 제품의 시장성을 이유로 한국 제품에 가격경쟁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구매력, 소비 성향

- 월평균 실질임금 수준*은 한국보다 낮으나, 물가 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음

* '24년 기준, 대만 약 1,762달러, 한국 약 2,615 달러(대만 노동부, 한국 고용노동부 통계를 연평균 환율로 환산)

** '24년 기준, 대만 7만 9,565달러, 한국 6만 2,697달러(IMF(국제통화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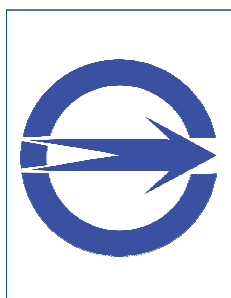
- 트렌드 세터보다 트렌드 팔로워 성향이 강한 편
 - 해외에서 유행하는 제품·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며 체험해보려는 개방성·적극성이 높은 반면 관심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빠르게 옮겨가는 특성도 뚜렷

- 지인·인플루언서 추천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타인의 시선보다 개인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집중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

□ 주요 인증

- BSMI
 - 전기·전자·화학·기계 유형에 속하는 특정 품목에 요구되는 강제 인증제도
 - BSMI 필수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산품·수입품을 불문하고 인증을 취득해야 대만 시장에서 유통·판매 가능
 - 수입품의 경우, 현지 수입자(현지 법인·지사 포함)나 대리상을 통해 신청·취득 가능(현지 파트너나 거점이 없는 해외 수출업체가 직접 신청 불가)
 - BSMI 제도는 ISO·IEC 등 국제표준과 높은 수준으로 연계돼 있으나, 현지화 기준도 적용되므로 국제표준으로 대체할 수 없음

대만 BSMI 인증마크(좌)와 인증방식 구분(우)



인증 등록을 위한 평가 방식 구분	인증 등록 신청 유형별 주요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1(자체 관리) • 모듈2(형식시험) • 모듈3(형식적합성 선언) • 모듈4(전체 품질경영시스템) • 모듈5(생산 품질경영시스템) • 모듈6(제품 품질경영시스템) • 모듈7(공장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1 : 자체 관리 선언서, 지정 기술문서 • 모듈2+3 : 형식시험 성적서, 형식적합성 선언서, 지정 기술문서 • 모듈2+4, 5, 6 : 형식시험 성적서, 형식적합성 선언서, 지정 기술문서, 품질경영시스템 등록 증명서 • 모듈2+7 : 형식시험 성적서, 형식적합성 선언서, 지정 기술문서, 공장 심사 보고서

주: 품목별로 요구되는 인증 등록 신청 유형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자료: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 화장품 제품정보파일(PIF) 구비 제도
 - '26년 7월부터 전면 실시*
 - * 이 전까지는 △ 특정 용도 화장품(자외선 차단, 염색, 파마, 땀 분비 억제, 치아 미백, 각질 연화, 여드름 예방 관련 성분 포함 제품) △ 일반 화장품 일부(영·유아용, 눈·입술용) △ 의약품용 치약·가글액에 한해 적용
 - 제품정보파일은 제품 라벨에 표시된 제조 또는 수입 업체 주소지에 최소 5년간(마지막 제품 출시일 다음날 기준) 보관해야 함
 - 16종에 달하는 문서가 요구되므로 수출자와 OEM·ODM 제조사의 적극적인 대응·협조가 필수적임

PIF 구비 서류 유형

No.	구비 서류 유형	No.	구비 서류 유형
1	제품 기본정보	9	제품 및 성분별 물리적·화학적 특성
2	제품등록 완료 증빙서류	10	성분의 독성 정보
3	전체 성분명과 성분별 함량	11	제품 안전성 시험 결과보고서
4	제품 라벨, 설명서, 용기·단상자	12	미생물 검사 결과보고서
5	화장품 GMP 준수 증빙서류	13	방부효력 시험 결과보고서
6	제조 방법 및 과정	14	기능성 평가 입증자료
7	사용 방법·부위·용량·빈도·대상	15	제품 접촉 포장재 정보
8	사용 시 불량반응자료	16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자료: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 해당 시장의 전략적 가치

- 동남아 시장과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고 동남아 화인(華人) 경제권과도 접근성이 높음.
 - 중국과는 정치·외교적으로 긴장 국면이며 민간 교류도 둔화된 편이나 교역은 여전히 활발
- 반도체를 비롯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미국-중국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라인 위주로 대만 내 투자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 (수출) '21년에 4,000억 달러 돌파하고 '22년 역대 최고치(4,794억 달러) 기록
 - '23년 소폭 감소 이후 1년 만에 다시 반등
 - '25년에 5,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26년에 6,0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최고치를 경신 전망
 - * 6,000억 달러 돌파 가능성도 있음
- (수입) '22년 4,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나 '23~'24년 3,000억 달러대로 감소
 - '25~'26년에 다시 4,000억 달러대를 회복하며 각각 4,700억 달러대에 도달 예상
- (무역수지) '76년 이래 지속적으로 무역흑자 기록
 - '21년 팬데믹 당시 첫 600억 달러 흑자를 기록, '23년 800억 달러 돌파 이어 '25년 9월 누계로 1,000억 달러에 육박함

대만의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역외 수출	4,324	-9.8	4,750	9.8	4,526	29.7
역외 수입	3,517	-17.9	3,944	12.2	3,534	22.0
무역수지	808	57.4	806	-0.2	992	67.0
총 교역	7,841	-13.6	8,694	10.9	8,060	26.2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25년 10월 23일 조회)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24년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1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 '25년 9월 누계 기준 對미 수출 비중은 30%에 육박함
 - 對한 수출 비중은 4%대에서 소폭 등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대만의 주요 수출국

(단위: 억 달러, %)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
	총 수출	4,750	9.9		총 수출	4,526	29.7
1	미국	1,114	46.1	1	미국	1,305	54.9
2	중국	970	1.3	2	중국	729	2.4
3	홍콩	536	-5.1	3	홍콩	517	36.7
4	싱가포르	337	13.5	4	싱가포르	289	19.2
5	일본	258	-17.8	5	말레이시아	288	103.6
6	한국	208	14.2	6	일본	219	14.4
7	말레이시아	199	31.3	7	한국	187	25.5
8	베트남	143	21.8	8	멕시코	164	220.8
9	태국	118	8.9	9	베트남	133	26.2
10	네덜란드	97	-25.1	10	태국	96	10.7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25년 10월 23일 조회)

- (수출 품목) 전자집적회로(반도체) 수출이 1/3 이상 차지
 - AI 열풍으로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서 컴퓨터·주변기기 품목의 수출 비중이 '24년 이후 두 자릿수로 확대됨*

* ('23년) 9.0% → ('24년) 17.8% → ('25년 9월) 25.9%

대만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억 달러, %)

2024년			
순위	품목명(HS Code)	금액	증감률
	총 수출	4,750	9.9
1	전자집적회로(8542)	1,650	-1.0
2	컴퓨터·주변기기(8471)	846	118.7
3	컴퓨터 부품(8473)	145	1.4
4	유무선 통신 기기(8517)	125	-4.2
5	석유제품(2710)	123	-2.6
6	데이터 저장 매체(8523)	88	21.2
7	디스플레이 모듈(8524)	82	90.2
8	반도체 제조 장비(8486)	49	4.0
9	인쇄회로(8534)	49	-1.2
10	반도체 디바이스(8541)	45	0.1

2025년 9월 누계			
순위	품목명(HS Code)	금액	증감률
	총 수출	4,526	29.7
1	전자집적회로(8542)	1,494	27.0
2	컴퓨터·주변기기(8471)	1,170	83.1
3	컴퓨터 부품(8473)	240	128.2
4	유무선 통신 기기(8517)	117	34.7
5	석유제품(2710)	91	-3.4
6	데이터 저장 매체(8523)	65	-0.3
7	디스플레이 모듈(8524)	64	4.9
8	인쇄회로(8534)	38	4.0
9	반도체 제조 장비(8486)	38	3.0
10	반도체 디바이스(8541)	35	3.7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25년 10월 23일 조회)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중국이 1위 유지
 - '25년에 對한 수입이 급증하며 한국이 2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
 - 한국은 또한 대만의 1위 무역적자 대상국임. AI 수요 관련 메모리 수입 확대로 '24년 對한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대로 급등하면서 일본을 제침*
- * '25년 9월 누계 기준 對한 무역적자는 27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8% 증가, 무역적자 대상국 1위를 유지함

대만의 주요 수입국

(단위: 억 달러, %)

2024년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
	총 수입	3,944	12.2
1	중국	793	12.9
2	미국	465	13.6
3	일본	465	4.8
4	한국	437	53.8
5	말레이시아	146	50.9
6	호주	146	-15.9
7	독일	153	-2.6
8	싱가포르	97	1.9
9	사우디아라비아	84	-7.6
10	베트남	79	28.7

2025년 9월 누계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
	총 수입	3,534	22.0
1	중국	671	16.1
2	한국	463	55.1
3	일본	403	19.0
4	미국	359	-2.3
5	말레이시아	137	25.6
6	독일	107	4.8
7	베트남	97	65.9
8	싱가포르	94	32.9
9	호주	87	-22.1
10	네덜란드	65	100.5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25년 10월 23일 조회)

- (수입 품목) 전자집적회로(반도체)가 전체의 26.9%(’25년 9월 누계 기준)를 차지
 - 탄소중립과 에너지 구조 전환 추진, 전통 산업 업황 부진에 따라 원유 수입은 감소 추세를 보임

대만의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억 달러, %)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순위	품목명(HS Code)	금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HS Code)	금액	증감률
	총 수입	3,944	12.2		총 수입	3,534	22.0
1	전자집적회로(8542)	943	28.9	1	전자집적회로(8542)	950	41.5
2	원유(2709)	239	-4.8	2	반도체 제조 장비(8486)	220	79.3
3	반도체 제조 장비(8486)	176	-10.5	3	원유(2709)	169	-10.9
4	컴퓨터·주변기기(8471)	129	87.9	4	컴퓨터·주변기기(8471)	159	83.0
5	석유가스(2711)	126	-4.8	5	컴퓨터 부품(8473)	157	215.6
6	석탄(2701)	93	-20.8	6	석유가스(2711)	99	7.8
7	승용차(8703)	82	2.9	7	유무선 통신 기기(8517)	83	55.9
8	유무선 통신 기기(8517)	79	10.5	8	전기 계측기(9030)	65	109.3
9	석유제품(2710)	72	15.7	9	인쇄회로(8534)	55	59.7
10	컴퓨터 부품(8473)	65	33.9	10	승용차(8703)	51	-17.2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25년 10월 23일 조회)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25년 9월 누계 기준, 대만은 한국의 4위 수출대상국(6.7% 비중)이자 4위 수입대상국(5.0% 비중)
 - 상호 반도체 교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은 메모리, 수입은 비메모리 위주로 상호 보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교역 규모
 - (수출) ’24년에 3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25년에도 높은 상승세를 유지 중
 - (수입) 수출과 함께 ’24년에 300억 달러를 처음 상회
 - (무역수지) 수출이 수입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25년에 역대 첫 100억 달러 흑자*를 기록(9월 누계 기준)*

* 대만에서 집계된 對한국 무역수지는 약 276억 달러 적자

** 수입은 원산지 기준, 수출은 목적지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대만 측 對한 무역수지 적자와 한국 측 對대만 무역수지 흑자에는 큰 차이가 발생. 특히, 한국-대만 간 교역은 반도체 등 중간재 위주라는 점에서 제품이 다른 나라를 거칠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 인정 방식에 따라 통계가 달라질 수 있음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72.9%(‘25년 9월 누계 기준) 비중을 차지하며, 반도체 수출의 77.7%는 메모리 반도체임
- (수입) 반도체가 전체 수입의 77.4%(‘25년 9월 누계 기준) 비중을 차지하며, 반도체 수입의 89.8%는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임

한국의 대대만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순위	품목명(MTI)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MTI)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33,969	68.3		총 수출	34,676	51.7
1	반도체(831)	21,621	127.2	1	반도체(831)	25,289	84.7
2	석유제품(133)	1,253	44.7	2	반도체 제조 장비(732)	1,209	50.3
3	반도체 제조 장비(732)	1,134	65.5	3	기구부품(834)	750	27.3
4	기구부품(834)	801	12.2	4	석유제품(133)	666	-16.9
5	석유화학중간원료(212)	738	-1.0	5	레일·철구조물(615)	487	-3.1
6	레일·철구조물(615)	700	202.0	6	자동차(741)	415	3.8
7	기초유분(211)	671	-9.9	7	컴퓨터(813)	348	59.3
8	자동차(741)	534	3.8	8	석유화학중간원료(212)	301	-46.0
9	동제품(622)	401	96.8	9	전력용 기기(841)	291	88.1
10	철강판(613)	353	26.0	10	비누·치약·화장품(227)	249	19.7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23일 조회)

한국의 대대만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30,225	24.0		총 수입	23,681	8.6
1	반도체(831)	23,265	30.3	1	반도체(831)	18,328	11.0
2	광학기기(715)	702	24.2	2	컴퓨터(813)	798	89.5
3	컴퓨터(813)	626	5.3	3	광학기기(715)	511	1.4
4	반도체 제조 장비(732)	513	0.8	4	기구부품(834)	434	16.4
5	기구부품(834)	498	4.4	5	반도체 제조 장비(732)	319	-20.8
6	동제품(622)	273	2.9	6	동제품(622)	214	-2.3
7	석유화학중간원료(212)	268	66.2	7	석유제품(133)	210	425.1
8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736)	245	4,441.2	8	알루미늄(621)	143	46.2
9	철강판(613)	223	-11.5	9	정밀화학원료(228)	141	6.0
10	디스플레이·센서(836)	219	14.8	10	철강판(613)	113	-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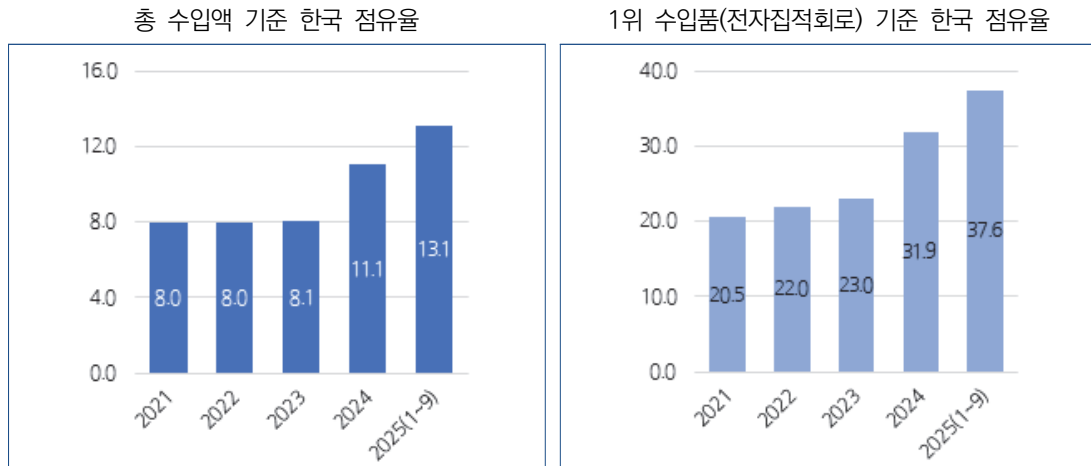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23일 조회)

• 한국의 대만 내 수입시장 점유율

- 한국은 대만의 2위 수입대상국으로 '25년 9월 누계 기준 13.1% 비중을 차지
- 대만의 1위 수입 품목인 전자집적회로(HS Code 8542)의 경우에도 對한 수입 비중이 37.6%로 1위 차지함. '23년까지는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였으나 '24년 한국이 중국을 제치며 1위로 부상함
- 한류 소비재인 K-뷰티의 경우, 대만 화장품(HS Code 3304) 수입 시장에서 미국을 제치고 3위로 부상했으며, 프랑스(1위)와 일본(2위)을 추격하고 있음
- 탄소중립, 에너지 구조 전환 정책 관련 해상풍력 관련 철구조물(HS Code 7308) 수입 시장에서는 한국이 50% 안팎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 중임

〈한국의 대만 내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25년 10월 23일 조회)

□ 대만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대만 진출전략 : 화장품 기업 A사(현지 유력 백화점 B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A사의 코스메슈티컬 제품은 구매력이 높은 중년층 수요를 겨냥, 국내에서 검증 받은 상품성은 파트너사의 초기 마케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
- 필수 인증 : 해당 사항 없음
- 성약 소요기간 : 첫 접촉 이후 약 7개월 소요
 - '24년 11월말 바이어 측이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무역관에 지원을 요청
 - '25년 1월 연락이 닿아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
 - 타협점을 찾지 못하던 중 '25년 5월 무역관의 주선으로 바이어가 A사 공장을 직접 방문
 - 공장 방문 후 A사와의 이견을 조율하여 계약서를 수정했고 '25년 7월 최종 계약 서명과 함께 첫 주문을 완료
 - 8월부터 현지 판매를 개시하고 중국어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적극 소통
- 바이어 발굴경로 : 현지 바이어가 한국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제품을 직접 발굴. 무역관에 A사와의 미팅 주선을 요청하여 무역관이 양사 간 소통·연결을 지원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현지 K-뷰티 시장의 빈틈(중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의 비교우위, 국내에서 검증된 상품성은 바이어의 관심을 유도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
 - 바이어의 공장 방문 기회를 활용한 신뢰 형성과 중국어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맞춤형 소통 강화 노력은 파트너십 구축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



성공 사례로 보는 대만 진출전략 : 보안솔루션 기업 A사(현지 보안솔루션 전문 유통업체 B사와 파트너십 체결)

- 제품의 비교우위
 - 대만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운영기술 보안 수요를 핵심 타깃으로 설정
 - 선발주자 대비 인지도가 낮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경쟁사보다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초기 시장 진입의 발판을 마련하고 바이어의 관심을 유도
- 필수 인증 : 해당 사항 없음
- 성약 소요기간
 - 관심 바이어 첫 접촉 이후 약 3개월 소요('24년 2월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가입
 - '24년 12월 관심 바이어 발굴
 - '25년 3월 해당 바이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4월에 개최된 현지 최대 사이버보안 행사에 공동 참가해 공식 행보를 시작
- 바이어 발굴경로 : KOTRA 해외지사화 사업을 활용해 사전 접점이 없던 잠재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접근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시장 수요를 분석하고 후발주자의 약점을 가격경쟁력으로 보완하는 진입 전략을 수립
 - 잠재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적극성과 함께 계약 체결 직후 현지 행사에 공동 참가해 파트너십을 공식화했다는 점은 준비된 전략과 속도감 있는 실행력의 중요성을 시사함

□ 주요 경쟁국 동향

- 한국산 전자집적회로(HS Code 8542)는 대만 수입시장 내 1위를 차지하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임
 - 전자집적회로 다음으로 對한 수입이 많은 반도체 제조 장비(HS Code 8486)의 시장점유율은 6위. 주요 경쟁국(일본, 네덜란드, 미국) 대비 시장점유율 격차가 큰 편이나 '25년 5%를 상회함
- 對한 주요 수입 소비재는 승용차(HS Code 8703), 화장품(HS Code 3304)이며,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위, 3위를 차지
 - 승용차 수입시장은 독일, 일본이 각각 30%대 비중을 차지. 한국은 최근 대만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추세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이 2%대에서 4%대로 확대됨
 - 화장품 수입시장에서는 프랑스, 일본과 주로 경쟁. '24년 주요 경쟁국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한국은 15%대에서 19%대로 확대됨

대만 수입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품목명(HS Code코드)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전자집적회로 (8542)	한국	22.0	23.0	31.9	37.6
	중국	24.4	23.4	18.9	16.1
	일본	10.6	9.8	8.8	8.5
	미국	5.9	6.4	4.8	5.5
반도체 제조 장비 (8486)	네덜란드	28.3	28.8	20.1	24.2
	일본	22.5	20.4	25.8	23.7
	미국	20.4	19.0	18.8	17.1
	한국	3.8	2.8	4.4	5.2
승용차 (8703)	독일	27.9	32.5	35.6	34.7
	일본	25.8	27.9	27.2	30.4
	미국	14.8	8.3	11.5	9.1
	한국	2.6	4.1	3.0	4.3
화장품 (3304)	프랑스	24.1	24.9	23.2	23.1
	일본	25.6	23.2	20.7	22.5
	한국	14.9	15.2	19.2	19.3
	미국	14.3	13.5	11.5	9.3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25년 10월 23일 조회)

□ 대만의 대외·對韓 수입 규제

- '25년 10월말 기준, 총 10개 품목*, 총 9개 국가**를 대상으로 반덤핑 규제를 실시 중
 - * 유형별 품목수 : 철강·금속(4), 건축자재(3), 소비재(1), 기타(2)
 - ** 국가별 품목수 : 중국(8), 인도네시아·한국(각 3), 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각 2), 브라질·우크라이나·태국(각 1)
 - 對중 규제 품목수가 가장 많으며(8개), 신규 조사도 총 2건(철강·금속 1건, 소비재 1건) 진행 중
 - 對한 규제는 3건 모두 철강·금속 품목*이며, 신규 조사 중인 품목은 없음
 - * 1건(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은 '13년 8월부터, 2건(아연도금강판, 탄소강 후판)은 '16년 8월부터 규제가 이어짐
- 중국산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도 지정해 관리 중임
 - 수입규정 코드명 'MW0'로 분류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제품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함
 - * 대만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특수한 필요가 있거나, 소량(CIF 가격 3만 2,000대만달러 이하, 단일 품목 수량 24개 또는 40kg 이하) 수입일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특별수입을 허가
 - '25년 10월 전단위 HS Code 코드 기준, MW0 코드가 적용되는 품목은 총 2,512개(전체의 약 20%)에 달하며, HS Code 72류(철강)가 337개로 가장 많음*
 - * HS Code 02류(육류) 241개, 87류(일반 차량) 138개, 85류(전기기기) 134개, 52류(면직물) 131개 순

다. 산업

□ 주요 산업 개요

- 전자 부품·제품 제조업이 대만 전체 수출의 33.0% 차지('25년 9월 누계 기준)
 - 전자부품을 대표하는 반도체(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제품을 대표하는 컴퓨터(서버 포함) 제조업이 대만 전체 수출의 과반 비중임

최근 대만 주요 산업(대표 품목 기준)의 전체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누계		
HS Code	산업	비중	HS Code	산업	비중	HS Code	산업	비중
8542	반도체 제조	38.5	8542	반도체 제조	34.8	8542	반도체 제조	33.0
8471	컴퓨터 제조	9.0	8471	컴퓨터 제조	17.8	8471	컴퓨터 제조	25.9
8473	컴퓨터 부품 제조	3.3	8473	컴퓨터 부품 제조	3.1	8473	컴퓨터 부품 제조	5.3
8517	유무선 통신 기기 제조	3.0	8517	유무선 통신 기기 제조	2.6	8517	유무선 통신 기기 제조	2.6
2710	석유제품 제조	2.9	2710	석유제품 제조	2.6	2710	석유제품 제조	2.0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25년 10월 29일 조회)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반도체 제조업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성장세를 견인
 - 대내적으로는 기술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만형 칩스법(R&D, 첨단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시행 중이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산업·통상 정책에 따라 대규모 현지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 TSMC의 경우, 미국 애리조나주 투자 사업계획을 650억 달러에서 1,650억 달러로 확대함
 - 기술 선도 기업인 TSMC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높은 대응력을 보유한 반면 팹리스, 파운드리 레거시공정, 후공정 분야에서는 경쟁 심화와 급변하는 외부 환경으로 경쟁력 유지·확보에 어려움 가중되고 있음
- 컴퓨터(서버를 포함) 제조업은 미국-중국 기술 경쟁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 확대 흐름에 힘입어 수출기여도가 급등함*
 - * HS Code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는 '29년 9월 누계로 1,000억 달러급 수출 품목으로 부상함(1,000억 달러급 수출품은 '24년까지 반도체가 유일했음)
 - 미국 상호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 투자 진출에도 적극 행보 움직임을 보임*
 - * 위스트론(Wistron)은 '25년 미국에 법인을 신설하고 11억 달러 규모 투자 추진(달라스 공장 확충 등에 투입), 인벤텍(Inventec)도 '25년 미국 투자 진출을 결정('26년 중 휴스턴 서버 공장 양산 시작)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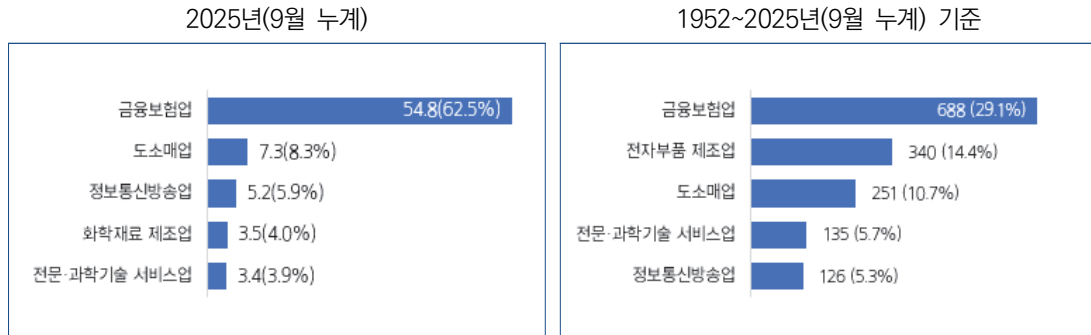
- '25년 9월 누계 기준, 88억 7,896만 달러 유치(전년 동기 대비 51.7% 증가)
- 역대 100억 달러 상회 기록은 총 7번이며, 이 가운데 5번은 최근 10년('16~'25년) 이내에 발생함*
 - * ('16년) 113억, ('18년) 117억, ('19년) 113억, ('22년) 133억, ('23년) 113억, ('26년) 140억, ('27년) 154억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對중 투자 유치 제외 기준)

- '25년에는 금융·보험업에서 과반 비중이 투자됨(9월 누계 기준, 약 55억 달러로 62.5% 비중)
 - 그 뒤를 △도·소매업 △정보통신방송업 △화학재료 제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순서대로 잇고 있음
- '52년 통계작성시점부터 '25년 9월까지 누계 기준 역시 금융·보험업이 1위 차지(29.1% 비중)
 - 전자부품 제조업(14.4%), 도·소매업(10.7%) 순임

〈업종별 투자 유치 동향〉

(단위: 억 달러)



주: 괄호 안 수치는 전체 대비 비중

자료: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회('25년 10월 29일 조회)

□ 주요 경쟁국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미국) '25년 9월 누계 기준, 2억 9,609만 달러 유입(전년 동기 대비 57.1% 감소), 전체 대비 3.3% 비중 차지. 정보통신방송업에서 1억 4,134만 달러(47.7% 비중)가 유입됨
 - 연간 최고 유입 금액은 '07년 31억 4,752만 달러이며 '09년 이후 10억 달러 미만 수준을 지속
- (중국) '09년부터 대중 직접 투자유치를 개방. 국민당 집권 시기인 '13년 중국의 투자 유입 비중은 전체 대비 6.6%까지 확대된 바 있으나 민진당 집권('16년 5월~현재) 이후 연간 유입 비중은 전체의 4%를 하회하는 수준임
 - '25년에는 9월 누계 기준, 1억 달러가 유입됐으며 전체 대비 1.1% 비중에 불과함
- (일본) '25년 9월 누계 기준, 6억 2,444만 달러 유입(전년 동기 대비 155.5% 증가), 전체 대비 7.0% 비중 차지. 금융·보험업에서 2억 3,863만 달러(38.2% 비중)가 유입됨
 - 연간 최고 유입 금액은 '22년 16억 9,941만 달러로 기계설비 제조업에서 7억 5,433만 달러, 금융·보험업에서 4억 6,896만 달러가 유입됨

□ 대만의 對韓 투자 현황

- '22년·'24년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23년·'25년(9월 누계)에는 금융·보험업에서 활발한 투자가 전개됨
 - 역대 최고 기록은 '21년 4억 달러로 이 당시에도 금융·보험업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투자가 이뤄짐

대만의 對한국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건,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누계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신고 금액	20	-95.2	377	1802.9	238	-36.8	80	-62.1
신고 건수	27	-12.9	39	44.4	68	74.4	31	-36.7

자료: 산업통상부('25년 10월 29일 조회)

□ 한국의 對대만 투자 진출

- '25년 상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에서 1억 4,000만 달러, 금융업에서 9,200만 달러 투자가 이뤄지며 역대 세 번째('21년*, '22년*, '25년)로 2억 달러를 돌파
* '21·'22년에는 하나은행 타이베이 지점 설립 관련 금융업에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됨
- 한국의 對대만 투자는 일관된 흐름을 보이기보다 개별 기업 단위의 투자 계획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한국의 對대만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건,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투자 금액	259	-11.7	69	-73.3	89	29.0	281	368.3
신규 법인 설립 건수	29	-25.6	30	3.4	65	116.7	50	51.5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5년 10월 29일 조회)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화장품 무역업체 A사, 시장 환경 변화를 기민하게 포착해 사업을 다각화

- (내용) A사는 국내 모 브랜드 제품의 수출 독점권을 통해 대만에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해 왔음. 대만이 화장품 제품정보파일(PIF)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국 수출업체와 현지 수입업체들이 복잡한 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자 A사는 이 지점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 대만에 거점을 설립해 한국-대만 기업 대신 제품정보파일 구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규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함. A사는 또한 K-뷰티의 부상과 대만 시장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자체 브랜드 개발이라는 더 큰 도전에 나섬. 기존 사업을 통해 다져진 대만 내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발판 삼아 대만을 첫 해외 진출 시장으로 선정하고 이를 교두보 삼아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임
- (시사점) 시장의 규제 변화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포착하여 단순 유통업자에서 '규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으로 진화, 현지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발판 삼아 리스크가 큰 자체 브랜드 사업에 단계적으로 진출하며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신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평가됨



주요 투자 진출 사례: 철도 유지보수차량 개발·제조 기업 A사, 핵심 자원 기능 내재화로 시장 지배력 공고화

- (내용) A사는 가공전차선 이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철도 유지보수차량 수요를 포착해 현지 시장에 진출함. 초기에는 현지 파트너사가 정부조달 입찰과 계약을 담당하고 A사가 차량을 제작·공급하는 방식으로 협력함. 그러나 파트너사의 역할이 형식적인 절차 이행에만 국한되고, 발주처와의 기술 소통, 요구사항 변경 대응, 사후관리(AS) 등 실질적인 책임은 A사가 책임져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고착화됨. A사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지 지사 설립을 결정했고, 입찰부터 납품, AS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며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수행능력을 입증. 프로젝트당 많게는 30대에 달하는 물량을 성공적으로 공급하며 현지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고히 다짐
- (시사점) 정부입찰 시장 진출 시 현지 파트너를 통해 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기술 지원과 고객 관리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 일정 수준의 사업 경험을 축적한 뒤에는 핵심 자원 기능을 내재화하고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전환이 중요함을 시사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인사·노무) 반도체 등 핵심 첨단 산업으로 인재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반 제조·서비스 업종은 안정적인 인재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인사 관리 전반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사례) 대만 행정원은 '25년 8월 '직업안전위생법(산업안전보건법 격)'을 개정하고 △ 직장 내 괴롭힘 전면 통보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 공사 발주처 대상 잠재위험 사전분석 의무화를 추진
- (특정 산업 투자 금지 등 규제) 외국인직접투자(FDI) 허용 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관리*하여 개방 수준 높은 편
 - * 총 96개 중분류 업종 기준 10개 업종 금지, 16개 업종 제한
 - 다만, 중국(홍콩·마카오 제외) 자본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감독기준(투자허용업종을 포지티브로 관리 등)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모기업이 중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국 법인을 통해 대만에 투자 진출 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2. 유망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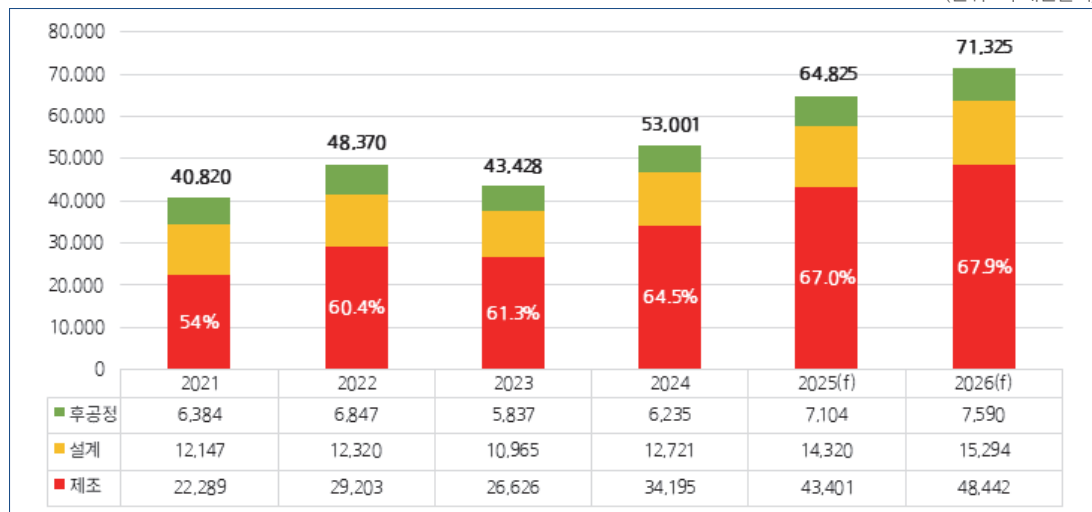
가. 반도체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24년 5조 대만달러를 돌파한 연간 생산액은 '25년 6조, '26년 7조 대만달러 돌파 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설계, 제조, 후공정(패키징·테스트)으로 구분한 분야별 구성비는 사실상 파운드리가 대부분(일부는 메모리)을 차지하는 제조 분야가 67%에 달함(설계 20%대, 후공정 10%대)
 - '24년 생산액 기준, 대만 반도체 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파운드리가 78.1%를 차지하며, 후공정 48.9%, 패키징 16.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대만 반도체 산업 생산액(분야별)〉

(단위: 억 대만달러)



주: '25·'26년은 전망치

자료: 대만 공업기술연구원('25년 10월 28일)

- 최근 수출입 동향
 - HS Code 8542(전자집적회로) 품목의 '25년 9월 누계 기준, 대만 전체 수출의 33.0%, 수입의 26.9%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수출입 규모는 각각 27.0%(수출), 41.5%(수입) 증가함
 - 수출은 시스템반도체(HS Code 8542.31·33·39)가 전자집적회로 전체 수출의 85.7%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수입은 시스템반도체와 메모리반도체(HS Code 8542.32)가 각각 51.8%, 48.0% 구조를 형성(나머지 일부는 부품류)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총 1,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
 - 일본 구마모토, 독일 드레스덴에서도 공장 건설 사업을 진행 중*
 - * 투자 규모 : (일본) 2조 9,600억 엔, (독일) 100억 유로
 - 최첨단 공정은 대만에서 우선 도입한다는 원칙 아래 대만 내 투자 사업도 지속*
 - * '28년 하반기경 대만 타이중 신설 공장에서 1.4나노 양산을 시작할 계획

대만 반도체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TS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3월 미국 애리조나에 1,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진행하던 애리조나 공장 건설 사업* 투자 금액을 더해 총 1,650억 달러에 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말 4나노 양산 시작, '28년부터는 2~3나노를 생산하고 2나노 이하 선단공정도 도입할 방침임 - 추가 투자 금액은 공장 증설과 함께 첨단 패키징 시설, R&D센터 설립에 투입할 계획 • 대만에서는 2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을 도입할 공장을 건설 중 타이중, 신주, 타이난 소재 신설 사업장에서 1.4나노를 비롯한 1나노, 0.7나노를 도입할 것으로 관측됨
ASE Hold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사 요청에 따라 미국 투자 진출을 고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 미국 진출 시 TSMC 애리조나 공장과 연계해 현지 첨단 패키징 수주를 확대하고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미국 내 영향력 강화 효과를 창출 기대
MediaTe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을 위한 주문형 반도체(ASIC) 설계 사업 확장에 총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형 반도체 설계 분야가 주요 사업 성장동력으로 부상 예상

자료: 대만 경제일보('25년 8월 28일) 등 현지 언론 보도 종합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회복탄력성 강화, 리스크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각화 필요성 확대는 대만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다만, 진입 과정에서 기술·품질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중간 벤더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현지 대응력을 강화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나. 에너지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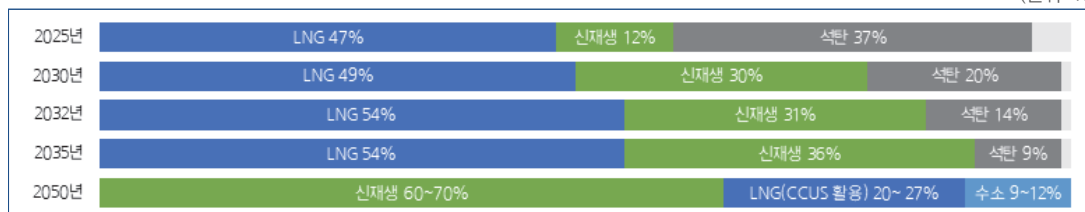
- 현지 산업 규모
 - 화석연료(석유·석탄·LNG)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84.8%('25년 8월 누계)를 차지하나 탈석탄 정책 기조에 따라 LNG 비중이 증가* 추세
 - * 전체 화석연료 발전량 대비 LNG : ('23년) 47.6% → ('24년) 51.0% → ('25년 8월) 55.3%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2.4%(‘25년 8월 누계)를 차지하며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에 따라 설치용량이 빠르게 확대 중*

* (‘22년) 14GW → (‘25년 8월) 22GW. 약 3년 간 57.1% 증가

〈대만의 에너지믹스 현황과 달성 목표〉

(단위: %)



주: '25년은 8월 누계 기준

자료: 대만 경제부 에너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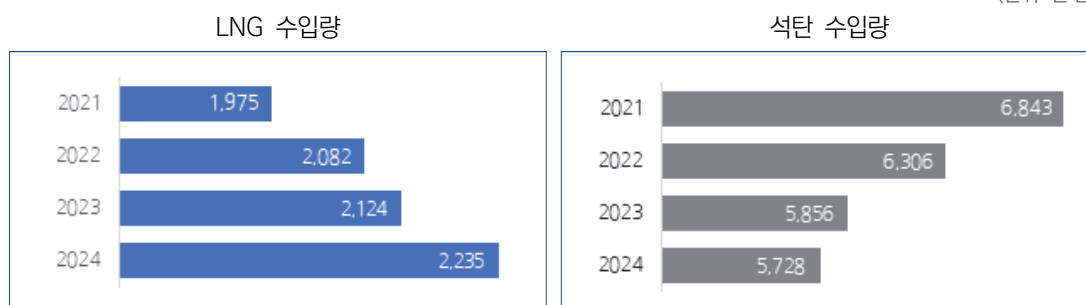
• 최근 수출입 동향

- (수출)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을 주로 수출. 석유제품(HS Code 2710)은 5위 수출 품목으로 총 수출액의 2.0% 비중을 차지(‘25년 9월 누계)하며 경유를 주로 수출
- (수입) 원유(HS Code 2709), LNG(HS Code 2711), 석탄(HS Code 2701)이 대만 전체 수입의 8.9% 비중(‘25년 9월 누계) 차지. 에너지 구조 전환 과정에서 화력발전의 에너지를 석탄에서 LNG로 대체함에 따라 석탄 수입은 줄고, LNG 수입은 증가 추세. 해상풍력발전 관련 기자재 수입도 해상풍력발전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와 함께 증가함*

* 주요 품목인 '풍력발전세트(HS Code 8502.31)' 수입 동향(단위: 백만 달러): (‘23년) 289 → (‘24년) 455 → (‘25년 9월 누계) 1,292

〈에너지 구조 전환에 따른 화석연료 연간 수입량 증감 비교(LNG·석탄 기준)〉

(단위: 만 톤)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경제부 산하 대만전력공사, CPC 등이 에너지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만전력공사의 적자 문제*는 대만 전체 에너지 전환 속도, 전기요금제도의 건전성, 중장기적인 전력공급 안보를 저해 우려

* '25년 7월말 기준 누적 손실 4,179억 대만달러

-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급증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력망 회복탄력성 강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함

대만 에너지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대만전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부 산하 송배전 독점 사업자로 발전·송배전·판매를 모두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부터 '전력망 회복탄력성 강화 계획'을 추진 중. '32년까지 10년 간 총 5,645억 대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임. 특히, 전력망 분산을 통한 전력망 집중 리스크 축소에 방점. 전체 예산의 약 78%를 전력망 분산 사업*에 집중 편성함 * △발전소-산업단지 간 전력직접공급망 구축 △변전소 28개 증설 △신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확대 및 과학단지 지원 차원 초고압 변전소 신설 등
C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와 가스 탐사·수입·정제를 담당하는 경제부 산하 공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NG 발전 비중 확대 지원 위한 LNG 터미널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 중* * 만·관이 추진하는 제1~7터미널 개발 사업 가운데 4개 담당 - 수소에너지 인프라 개발 사업, 미국 통상정책 관련 미국산 LNG 구매·투자 사업도 추진 중
S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주요 해상풍력 개발 업체로 누적 개발용량 6GW 상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풍력용 특수목적선 분야 DFO, 해저구조물 분야 센추리(Century) 그룹 등 현지 산업 공급망 내 주요 기업과 제휴로 상생발전 도모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중앙통신사('25년 8월 8일) 등 현지 언론 보도 종합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 전력수요 지속 증가 전망과 함께 탄소중립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 추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 위한 에너지저장 수요 확대 △ 해상풍력 지속 개발과 국산화 규정 완화 움직임 △ 수소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실증 사업 및 인프라 구축 기회 △ 분산형 전원 증가와 전력수요 관리의 중요성 확대 관련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관리 솔루션 시장 확대는 기회요인임

3. 협력 기회

가. 통상

□ K-브랜드 위상과 대만의 전략적 가치 기반 협력 기회

- 대만은 한류 콘텐츠·소비재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중화권 핵심 시장이자, 동남아 시장으로 파급력을 갖춘 전략적 교두보임
 - 수준 높은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의 신제품·서비스가 아시아 시장에서 통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단' 역할 수행의 잠재력을 보유
 - K-뷰티, K-콘텐츠, K-바이오 등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단순 상품 무역을 넘어 기술제휴·공동 R&D(연구개발) 등 고부가가치 협력 모델을 모색 가능
 - 다만, 중장기적 발전 가능성은 현지 시장 생태계와의 연계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필요



성공/실패 사례

- (개요)
 - 대표적인 K-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A사는 '14년 대만에 진출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
 - 반면, 후발주자로 '21년 진출한 다른 플랫폼은 약 4년 만에 사업 철수를 결정
- (시사점)
 - 플랫폼별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보다는 현지 시장의 핵심 플랫폼 생태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됐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린 것으로 풀이됨
 - 선발주자인 A플랫폼은 현지의 강력한 앵커 플랫폼과 연계돼 사용자 접근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주효했던 반면, 후발주자는 유사한 앵커 플랫폼 생태계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경쟁
 - 우수한 콘텐츠만으로는 초기 진입장벽과 시장 구도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나. 프로젝트

□ 에너지 전환 정책 기초 기반 협력 다양화 기회

- 대만은 '2050탄소중립' 목표 아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0~70%, 수소 발전 비중을 9~12%까지 확대할 방침임
 - 이런 정책 기초 이면에는 반도체·AI 등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핵심전략산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과제가 공존
 - 이러한 정책적 목표와 산업적 필요성은 향후 에너지 발전·저장·송배전 등 인프라 전반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다양한 협력 수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됨



성공 사례

- (개요)
 - 케이블 내부 보강재 및 내부 도체 보호용 완충제 생산업체 A사는 해저케이블 분야에서 국내외 여러 주요 기업에 납품 실적을 보유
 - 대만 유력 케이블 제조사가 해저케이블 생산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대만 진출 가능성을 타진
 - 해저케이블 분야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해당 대만 기업과 접촉한 지 8개월 만에 샘플 테스트를 통과, 해당 대만 기업의 공장이 완공('25년 시범 생산, '27년 정식 가동 예정)되면 실제 생산라인에서 테스트를 거쳐 '26~'27년경 정식 납품 예상
- (시사점)
 - 기존 고객 관리에만 안주하지 않고 해외 잠재 고객의 신사업 동향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즉각적인 사업 확장 기회로 연결하는 능동성이 돋보임
 - 시장 변화를 지속 주시하고 기회를 포착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 국내외 주요 기업에 납품하며 쌓아온 신뢰와 실적은 기술력과 안정성을 증명,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조기 확보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됨

다. 공급망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 한국-대만의 상호보완적 협력 기회

-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와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
 -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과 대만은 서로 경쟁자인 동시에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이 요구됨
 - 대만 반도체 산업이 마주한 과제들(△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다각화 △ 첨단 공정 고도화에 따른 기술 보안 강화 △ 반도체 생태계 초격차 유지를 위한 해외 기술·자본 유치 등)은 우리 기업이 대만 반도체 생태계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성공 사례

- (개요)
 - 산업용 운반장비 소모품 생산업체인 A사는 범용 제품군 분야에서 대만 총판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영업하고 있었음
 -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분야 판로 개척을 적극 추진한 결과, 현지 공장 자동화 솔루션 업체를 통해 일부 대만 반도체 기업에 납품을 시작하는 성과를 거둠
 - 대만 대표 반도체 기업의 공급망 진입도 꾸준히 시도한 결과 해당 기업 납품용 소모품을 테스트하는 현지 업체를 발굴하여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임
 - '25년에는 현지 개최 반도체 전시회에도 처음 참가하여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킹과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음
- (시사점)
 -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에 진출할 때, 초기에는 협력사를 통해 교두보를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유효
 - 최종 목표인 핵심 기업을 공략하기 위해, 기술력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샘플 테스트와 업계 내 인지도 및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전시회 참가라는 투트랙 전략을 병행하는 모습은 첨단 산업 B2B 시장에서는 단기적 성과보다 꾸준한 신뢰 구축과 다각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Ⅲ.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1
2. 진출전략	43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정치) '26년 11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여소야대 정국 속 라이칭더 총통 임기 후반 국정동력 확보 분수령
- (과제) 반도체·AI 산업 발전, 탄소중립 등 관련 정책 추진 지속
- (규제) '26년 대만형 CBAM 시범 도입 예정
- (외교·안보)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교적 고립 존재



경제(Economic)

- (성장률) 수출·투자 부문 역기저 효과로 '26년 2%대로 둔화 전망
- (수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수출 경기를 주도
- (금리) '24년 3월 이후 2%에서 동결
- (환율) 달러 대비 '25년 30.8에서 '26년 29.9로 소폭 하락 예상
- (물가) '26년 분기별 상승률 1.5% 상회 전망



사회문화(Social)

-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세 지속 전망
- (라이프스타일) 편리성·힐링 추구, 건강 중시,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
- (소비패턴) 트렌드 팔로워 성향, 개인 취향·가치관 중시, 저렴한 대체품 선호, 윤리적 소비 추구



기술(Technological)

-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미래기술에 전략적 투자 강화
- (에너지)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원 다양성 확보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 (자동화)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 위한 인프라·기술 수요 확대 추세
- (보안) 외부 사이버 위협 대응과 사이버 안보 기술력 강화에 총력

SWOT 분석

강점(Strength)



- 한국 메모리-대만 파운드리 중심 상호보완 공급망 구축
- 첨단산업 분야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술 경쟁력 보유
- 대만 대비 한류 기반 브랜드 경쟁력 확보

약점(Weakness)



-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유기적 협력관계 취약
- 對대만 교역 대비 대만 내 투자 활동은 저조
- 대만-중국 제품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

기회(Opportunity)



- AI·반도체 산업 확대에 공급망 진입 기회 증가
- 에너지 전환 기조로 에너지·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시장 기회 제공

위협(Threat)



- 미국-중국 경쟁 구도 속 지정학적 불안감 내재
- 일본 제품에 대한 압도적 선호도와 중국 제품의 추격
- 탄소규제·기술안보 강화 흐름은 진입장벽화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첨단산업 포럼·전시회 적극 참여로 공급망 네트워킹 강화
- 국내 ESS·스마트 그리드 기술 교류와 공급 확대
- K-브랜드 중심 소비재·이커머스 프리미엄 시장 공략



고신뢰·고품질 공급망
파트너로 포지셔닝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대만 기업과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 통해 공급망 리스크 분산
- 신재생·ESS 파일럿 프로젝트 중심의 단계적 접근
- 고품질·감성디자인 중심 프리미엄 제품+한류 마케팅 결합



친환경 기술 중심
민관 협력모델 구축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단순 가격 경쟁 대신 거래조건의 다양성·탄력성 구비
- 신재생·ESS 등 관련 산업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
- 헬스케어·니치소비·자동화 등 분야에서 신규 수요 발굴



한류 활용
틈새 프리미엄
소비시장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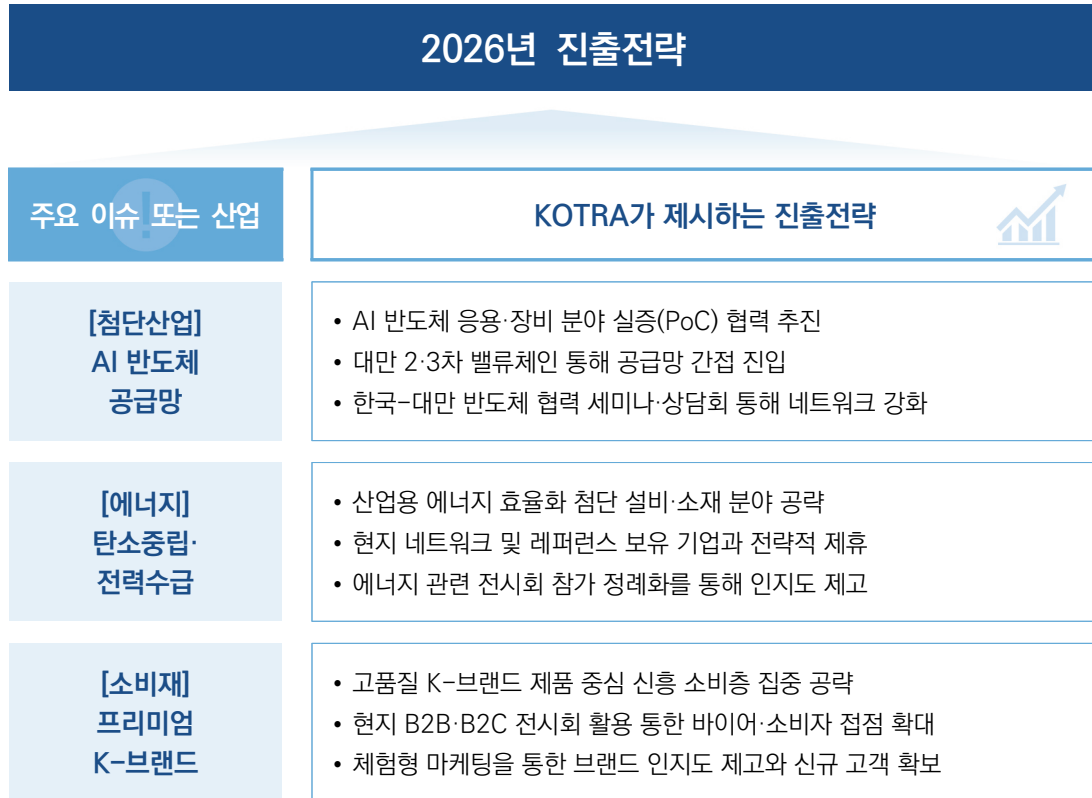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 공급망 다변화 → 대응력 확보
- 유관기관 진출지원 사업 활용해 초기 비용 부담 완화
- 한국 제품의 고품질·프리미엄 이미지 제고에 주력



현지화·파트너십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

2. 진출전략



전략 ①

AI 반도체 응용·장비 분야 실증(PoC)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반도체·AI 산업에 정책·예산 자원 집중, 반도체 산업 경쟁력 기반 AI 육성 기조에 따라 AI 기본법 및 10대 건설계획 추진
- (우리 기업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현지 파트너십·기술지원 거점 확보로 신뢰성·접근성 강화, 한국의 메모리·AI 기술과 대만 생태계 간 연계로 상호보완적 기회 창출

□ 현지 동향

- 대만 행정원은 “28년까지 반도체 산업 규모(생산액) 7조 7,000억 대만달러* 확대’를 목표로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임
 - * 정책 수립 당시(’24년) 산업 규모는 5조 대만달러를 돌파. 대만 공업기술연구원은 ’25년 10월 28일 “26년 7조 대만달러 돌파’ 전망을 제시함
 - ’26년에는 ‘5대 신뢰산업’ 정책 예산 중 54.0%에 달하는 155억 대만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투입할 예정
- ’26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는 1,381억 달러로 10.0% 성장 전망(SEMI ’25년 8월)
 - 이 가운데 전공정(웨어 펌) 장비 분야의 시장 규모는 1,221억 달러로 10.2% 증가하고, 후공정 장비 분야도 테스트, 조립·패키징 장비가 각각 5.0%, 15.0% 성장 예상
 - 대만은 한국, 중국과 함께 ’26년에도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투자 시장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대만 행정원은 AI 산업 육성에 83억 대만달러를 투입*할 예정
 - * ’26년 ‘5대 신뢰산업’ 정책 예산 중 28.9% 비중
 - ’25년 8월에는 ‘AI기본법’*을 의결(입법원 심사·통과 이후 발효 가능)했으며, ’26년부터는 ‘AI 10대 건설계획’**도 적극 추진할 방침임
 - * △ 적극적인 공적 지원 △ AI 혁신 제품·서비스 실험환경 조성 △ 부정적 영향 방지 △ 데이터 개방·공유 체계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 3대 핵심 추진 방향 : △ AI의 산업화, 산업의 AI화 목표 실현을 위한 전 산업 분야 스마트 응용 활성화 △ 실리콘 포토닉스, 양자 기술, 스마트 로봇 및 무인 이동체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 개발 강화 △ 법규, 인재, 거버넌스, 컴퓨팅 파워, 데이터 측면의 AI 발전 기틀 확립

대만 반도체 산업 대표 기업의 사업 확대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TS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평균 신설 공장 수, '17~'20년 3개에서 '21~'24년 5개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에는 총 9개 공장 신설(웨이퍼 공장 8개, 첨단 패키징 공장 1개) '25년 상반기 설비투자액은 약 1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3%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380억~420억 달러 예상 미국계 투자은행은 '26~'27년 TSMC의 설비투자액이 420~5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자료: 대만 중앙통신사('25년 5월 14일)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

□ 유망 품목

- (반도체 핵심 소재) 기술력·생산능력 경쟁우위 유지를 위한 고품질 소재의 안정적인 수요가 큰 편인데 반해 첨단 소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
- (반도체 장비 부품 및 서브시스템) 주요 반도체 장비는 미국·일본·네덜란드 유력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나, 장비에 사용되는 정밀부품·서브시스템·소모품 분야에서 외국계 대기업이나 대만 펌의 2차 공급업체로 협력 기회 유효
-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HBM 분야 한국의 기술력과 대만 내 CoWoS 첨단 패키징 생태계 확장이 서로 맞물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상호보완적·전략적 기회를 창출
- (AI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최적화 솔루션) AI 모델·알고리즘은 AI 칩·서버와 통합돼야 최고 성능 발휘 가능
- (특정 산업·분야 AI 애플리케이션) 산업의 AI화는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수율 향상, 설비 예지보전, 물류 최적화,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실용적 영역에서 솔루션 수요가 빠르게 증가

□ 진출전략

- 현지 R&D(연구개발)·핵심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기존의 경쟁 구도를 완화
 - 현지유력 소재·부품·장비 업체, 반도체 전문 유통사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상대방의 네트워크와 고객 관계를 활용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동반성장 기회를 창출
- 실증 기반 AI 시장 진출기회 확보와 현지화 모델 개발
 - 신뢰와 실제 운영 실적을 중시하는 대만 시장 특성상 국내 기술 검증 데이터 기반 현지 레퍼런스 기회 확보
 - 한국의 AI 소프트웨어를 현지 시스템·하드웨어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스템 통합 파트너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솔루션 공동 개발도 고려 필요
-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한국-대만 협력 포럼 또는 반도체 전시회(한국관) 참가를 정례화하여 업계 내 인지도 제고와 네트워킹 강화에 집중

전략 ②

에너지 산업 공급망 진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하고 '26년 탄소부담금 징수 시작,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30% 도달 목표로 에너지원 다각화 추진
- (우리 기업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해상풍력 핵심 기자재, 에너지저장·수소 인프라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진입 기회, 초기 실증사업 참여 통한 레퍼런스 확보는 현지 파트너십 구축에 유리

□ 현지 동향

-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3~25%에서 26~30%로 상향 조정
 - * '05년 2억 6,889만 톤 대비 기준
 - '32년 30~34% 감축 → '35년 36~40% 감축 → '50년 넷제로 달성 계획
- '26년부터 자국 내 고탄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탄소부담금 징수 시작 예정
 - * 부과대상 기준점을 연 배출량 2만 5,000톤에서 5,000톤까지 점진 확대 방침
-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도달을 목표*로 에너지원 다각화 개발 추진
 - * '32년 31% → '35년 36% → '50년 60~70% 도달 계획
 - △ 해상풍력·태양광을 주축으로 지열·소수력 개발 역량 강화 △ 에너지저장, 탄소 포집·활용·저장 분야 활성화 △ 수소에너지 인프라·기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
- 탄소중립2050 정책 기반 전력망 최적화를 위한 △ 분산 전력망 구축(예산 규모 4,379억 대만달러) △ 전력망 강화(1,250억) △ 시스템 방어능력 향상(16억 9,000만 대만달러) 사업 추진

대만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산업 대표 기업의 사업 확대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Del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공급장치 공급업체로 수소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데이터센터 관련 신사업 확장 위해 '25년 7월 건평 2만 5,000평 규모의 대만 타오위안(Taoyuan) 소재 공장 인수 - AI 데이터센터의 고효율 전력공급과 열관리 솔루션 수요 증가 추세 관련 수소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솔루션 도입 가속화 전망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 - '24년에는 "26년 말 대만 내 연료전지 스택과 시스템 장비 양산"을 목표로 대만전력공사, CSC(철강사), CPC(정유사) 등과 수소에너지 분야 협력체도 구성
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전자·모듈 시스템 공급업체로 '25년 2월, 에너지저장 분야 사업성을 낙관하며 4.2MW 규모의 BTM(소비자 측) 에너지저장 사업장 개발사업 착수. 고압·특고압 전력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계획 - △탄소중립 솔루션 사업을 위한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추적 시스템' 개발 △태양광 발전소 개발 분야의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확대도 추진 중

자료: 대만 자유시보('25년 7월 2일)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

□ 유망 품목

- (에너지 저장·관리 제품과 솔루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성, 산업용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 효율 제고와 공급 안전성 확보 필요
 - 고효율 송전 자재,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핵심 부품, 디지털 전력망 솔루션 등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
 - 특히 고압 사용자 대상 ESS 설치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냉각솔루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술 등에 대한 조달 수요도 증가 예상
- (해상풍력발전 관련 자재) 해상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의 핵심 분야임. 대만 경제부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불확실성 해소와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국산화 규정(LCR, Local Content Requirement)을 완화할 방침임
- (수소연료전지 및 관련 부품) '26년 이후 탄소부과금 시행과 더불어 시장 초기 단계로 관련 기술·인프라 분야 협력 수요 강력
- (데이터센터용 고효율 전력·냉각 시스템) AI 반도체 산업 확대로 전력밀도가 높은 설비용 고효율 전력관리 장치 수요 급증 예상

□ 진출전략

- 탄소중립 연관 산업은 정부정책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특성을 보유, 현지 네트워크와 레퍼런스를 갖춘 파트너와 협력하는 방식이 리스크를 최소화함
 - 정부 또는 민간 주도의 초기 실증사업에 기술·기자재 공급사로 참여해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중장기 기술·사업 파트너로 포지셔닝
- 해상풍력발전 분야의 경우 프로젝트별 입찰 기준과 국산화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기자재의 수요를 집중 발굴
- 수소에너지 분야는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이므로 실증 사업(수소 터미널, 저장탱크,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술 파트너로 진입
- 에너지 관련 유망 전시회 참여를 통해 대만 정부정책 방향과 업계 동향 파악, 협력 파트너십 기반 신규 공급망 진입 기회 모색

전략 ③

인구구조 변화 따른 틈새시장 개척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요약)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반려동물 개체 수 증가. 고령친화, 영유아, 반려동물 관련 시장 모두 안정적 성장 전망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한국 감성·품질로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오프라인 유통망 확보와 현지 전시회 참여로 소비자 접점 확대, 파트너십 기반 조율·협력 강화로 시장에 유연하게 적응

□ 현지 동향

- 저출산('24년 합계출산율 0.87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영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성장세를 유지 예상. 특히, 프리미엄 시장 비중이 확대 추세를 보일 전망
 - 뷰티·퍼스널케어 분야 영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향후 5년('24~'29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1%로 예상되며, 프리미엄 시장 비중은 '24년 32.9%가 '29년 38.1%로 확대될 전망이다(유로모니터, '25년 5월)
-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5년 20% 돌파 후 '31년 25%를 상회할 전망
 - 이에 따라 고령친화 식품 시장 규모 '25년 500억 대만달러 수준에서 '30년 600억 대만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대만 식품공업발전연구원)
-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1인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대만의 1인 가구 비중은 최근 10년 사이 31.1%('14년)에서 37.7%('24년)로 확대됨(대만 내정부 호정사 통계)
-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부상
 - '23년 기준,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 기준) 개체 수와 양육 가구 비율은 279만 마리, 28.3%로 '21년 대비 각각 32.6%, 6.7%포인트 증가(대만 농업부)
 - 반려동물 용품 시장 규모는 '26년 4.5% 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5년('25~'3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전망됨(유로모니터, '25년 5월)

대만 소매 산업 대표 기업의 사업 확대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통이그룹 (Uni-Presid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7월, 계열사를 통해 대만 주요 반려동물 용품 전문점 Pet Park*의 지분 10%와 이사 1석을 확보하며 '12년 반려동물 용품 사업 철수 후 10여년 만에 시장에 재진출 * 대만 전역 130개 매장 보유. '25년 상반기 매출 15억 7200만 대만달러(전년 동기 대비 12.7%↑) - 반려동물 개체 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졌고, 고마진·고성장 분야인 반려동물 사료 사업과 선두 유통망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됨
미쓰이 쇼핑파크 라라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5월 타이중에서 대만 1호점을 오픈한 라라포트는 '25년 3월 타이베이에 2호점을 오픈하고 대만 내 입지를 강화. 2호점에서는 영유아 동반 가족 고객을 겨냥해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KidZania)'를 유치, '26년 상반기 서비스 시작 예정 - 저출산 추세 속 오히려 자녀에게 자원과 애정을 집중하며 체험학습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부모들의 소비 성향을 정밀하게 공략한 것으로 평가 - 현지 시장에 해당 분야의 경쟁자가 부재하다는 점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함

자료: 대만 경제일보('25년 7월 16일)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

□ 유망 품목

- (프리미엄 소비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선택적 집중 소비' 경향이 뚜렷,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소비구조로 전환되면서 프리미엄, 감성형 제품이 각광
 - (영유아 용품) 가구당 자녀 수는 감소한 반면 한 자녀에게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양육 소비는 심화
 - (반려동물 용품) 반려동물의 가족화 현상은 관련 용품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투자 행동으로 발현
 - (1인 가구용 제품·서비스) 편리성, 공간 효율성, 감성적 만족감을 추구하며 간편식(HMR), 소형가전, 1인 맞춤형 서비스 등이 빠르게 확산 중
- (고령친화 식품) 미래 수요 확대 전망 대비 초기 투자비용 부담에 따른 관망 분위기로 시장 선점 기회 존재
 - 기존 건강보조식품(보조제) 중심 시장에서, 최근에는 '식사 대체형 건강식품', '고단백·저당 식사' 등으로 수요가 확장 중임

□ 진출전략

- 온라인 시장이 발전하고 있으나 타깃 소비자 특성상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직접 확인 후 구매하려는 경향이 짙어 오프라인 유통망 확보가 필수적
 - 브랜드 노출과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대만 역시 팝업스토어*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로, SNS 이벤트, 인플루언서 마케팅, 몰입형 디스플레이 등을 통합한 체험형 소비 수요 공략
 - * '25년 10~12월 대만 미쓰코시 백화점 내 국내 유통망-국내 유통 패션 기업 11개사 팝업스토어 운영
 - 현지 주요 B2B·B2C 전시회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개최되는 유관 전시회를 이용해 대만 바이어·소비자와 접점 기회 확대

- 영유아 용품과 반려동물 용품은 한국산 프리미엄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품 디자인을 통해 감성 소비 수요까지 공략하는 접근이 필요
- 고령친화 식품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소비자·유통채널의 인지도가 낮은 편. 제품 가치 전파, 구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파트너십 기반 홍보 전략이 요구됨
 - 관련 현지 브랜드 건강기능식품이 보편적이므로 ‘한국산’, ‘전통발효식품’ 등을 강조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



에너지 저장·관리 제품

- 선정사유**
-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와 함께 전력수급 불안감도 상존해 에너지 저장·관리 중요성 확대
- 경쟁동향**
- FTM(전기공급자 측) 에너지저장 시장은 포화 상태. 대만 기업들은 BTM(소비자 측) 시장 개척에 박차
 - * 미국 플루언스에너지(Fluence Energy)의 경우, '25년 대만 법인을 설치하고 스마트 에너지저장 플랫폼을 출시하며 현지화 기반을 강화
- 진출방안**
- 반도체·의료 인프라, 데이터센터 등과 같은 고안정성·고신뢰성을 요구하는 틈새시장 솔루션 수요 공략
 - 대만의 강점(배터리관리·전력변환 시스템 관련 핵심 부품 생산, 시스템 통합 역량), 한국의 강점(배터리 제조, 대규모 ESS 사업장 구축·운영 노하우) 기반 솔루션 공동 개발 파트너십 구축

건축자재

- 선정사유**
- △ 공공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공장 신·증설 확대 △ 탄소중립정책 관련 녹색건축 장려 기조 △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과반 차지 등으로 성장잠재력 보유
- 경쟁동향**
- 가격 경쟁 패러다임이 가치·인증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
 -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 개별제품 단순 판매 방식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발전 중
 - * 예시 : 방수재·단열재 공급과 바닥 시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바닥 마감 솔루션
- 진출방안**
- 가격 경쟁 지양하고 친환경·간편 시공·고기능 수요 관련 틈새시장 공략
 - 건축자재 관련 인증* 취득으로 건설사·건축주의 지속가능 경영 목표 부합성 어필
 - * 예시 : 그린가드 인증, EPD·HPD(환경제품선언·건강제품선언), C2C 폐기물 제로 인증 등
 - 대형 건설사 산하 전문 건설사, 중소 건설사 등 업력과 시공실적이 충분한 파트너 선별
 -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자재 특성에 맞는 설계·시공 솔루션을 지원·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파트너십 강화
 - 전문 건설사, 지역 기반 중소 건설사의 경우,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편이므로 중국어 소통 지원 자원 확보 필요

반려동물용품

- 선정사유** • 반려동물 개체 수와 양육가구 비율 증가로 시장 규모 지속 확대
- 경쟁동향** • 일본·캐나다 등의 경우, 협단체 단위로 현지 협단체와 활발 교류
• 대만 기업은 국내 생산 이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제도가 쉬운 제품이라도 직접 생산보다 해외 기성품 수입을 선호
- 진출방안** • 한국 시장에서 상품성 우선 검증 받아 레퍼런스 제시
• 가성비를 충족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 제시*
*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유통채널 입점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 필요
• 저가 유사품과 차별화 경쟁 위한 제품 가치* 확보·유지
* 한국산, 세련된 디자인, 정교한 마감, 프리미엄 소재 등
• 현지 주요 B2B·B2C 전시회* 적극 활용
* Pets Show('26년 7월 3~6일), Pets Pair('26년 1월 16~19일, '26년 9월 4~7일)

K-뷰티 제품(화장품·이너뷰티 제품)

- 선정사유** • 對대만 주요 수출 소비재 중 하나이며, 대만은 중화권 주요 한류 시장 중 하나로 동남아 진출 발판으로 활용 가치
- 경쟁동향** • (화장품) 대만 수입시장 내 한국이 3위 차지
- 일본(1위), 프랑스(2위) 시장점유율 감소 반면 한국은 상승
• (이너뷰티 제품) 한국이 특정 유효성분 개발·상용화 기회를 선점해 시장 내 주도권 확보
-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가격 책정으로 소비자 접근성도 우수
- 글로벌 한류 위상 상승으로 한류스타를 내세운 브랜드 홍보 효과도 큰 편
- 진출방안** • 한국 시장에서 상품성·시장성 검증 선행
* 한국 주요 화장품 유통채널 입점 실적 등이 주요 지표로 고려됨
• 현지 화장품 유통 법규 준수
- PIF(제품정보파일) 구비·보관 제도 확대 적용에 따라 관련 자료 준비·제공에 적극 협조 필요*
* 해외 직구 활성화에 따라 PIF 제도를 우회해 반입·유통하는 경로도 열려 있으나, △ 현지 오프라인 유통 시장은 개척할 수 없다는 한계점 △ 경쟁사 등이 현지 위생당국에 신고할 경우 세관에서 차단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감안 필요
• 이너뷰티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인증 취득에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일반 식품으로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
• 현지 소비자 접근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균형 잡힌 가격 전략 수립

자동화 설비·시스템

- 선정사유**
- 저출산·고령화 따른 구인난,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에서도 자동화 수요 확대
- 경쟁동향**
- 자동화 설비 분야 현지 주요 기업(주력 분야)으로는 △ Delta(산업 자동화 제어기기) △ TechMan(협동 로봇) △ Hiwin(산업용 로봇·정밀부품) △ Mirle(반도체·디스플레이·물류창고 분야 자동화) △ GPM(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자동화) △ Solomon(AI 머신 비전) △ TECO(산업용 동력전달 장치) 등이 있음
 - 일본·미국·유럽 주요 기업들이 현지에 거점을 두고 대만기업들과 경쟁·협력하고 있음
 - * 일본 기업 : Fanuc, Yaskawa, Keyence 등
 - 미국 기업 : Rockwell Automation, Cognex 등
 - 유럽 기업 : Kuka, ABB, Universal Robots 등
 - 구인난을 호소하는 요식업계에서도 서빙 로봇·컨베이어벨트, 바리스타 로봇 등을 개발·공급하는 현지 기업들이 활동 중
- 진출방안**
- 현지 유력 자동화 설비·시스템 개발사와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보완 협력 기회 모색*
 - * 사례 : 미국 로봇업체 텍스테리티(Dexterity)는 대만 하이윈(Hiwin)과 전력적 제휴 체결('25년 7월)하고 AI 물류로봇시장 개척에 협력
 -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한 기술지원팀과 충분한 부품재고 확보로 신뢰 구축
 - 관련 전시회* 활용 시장조사와 바이어 접촉기회 확보
 - * 산업 자동화 관련 : Taipei Automation('26년 8월 19~22일)
 - 요식업 자동화 관련 : Taiwan Horeca('26년 6월 24~27일)



IP 라이선싱

- 선정사유**
- 불안감 해소, 개성 표현 욕구에 맞물려 소확행·힐링 추구 트렌드 지속 확산
- 경쟁동향**
- 대만문화콘텐츠진흥원 실시 '24년 설문조사 기준, 외국 캐릭터에 대한 현지 소비자 관심도는 일본(54%), 미국(36%), 한국(23%), 유럽(16%), 중국(15%) 순
- 진출방안**
- 현지 소비자 선호도·니즈* 파악 선행
 - * 대만문화콘텐츠진흥원 실시 '24년 설문조사 기준,
 - △ 선호하는 캐릭터 이미지 : 귀여움(59%), 익살스러움(56%), 우스꽝스러움(40%), 쾌활함(37%), 편안함(36%) 순
 - △ 선호하는 캐릭터 유형 : 동물(고양이, 강아지, 토끼, 곰 순으로 총 80%), 사람(32%), 의인화 사물(15%), 요정(13%) 순
 - △ 선호하는 캐릭터 상품 유형 : 메신저 이모티콘 등 디지털 제품류(60%), 의류·액세서리류(40%), 생활잡화류(39%), 인형류(34%), 문구류(34%) 순
 - 마스터 라이선시 경험, 현지 콜라보레이션 사업 노하우가 풍부한 업체 발굴
 - 유관 전시회* 참가기회 적극 활용
 - * 만화박람회('26년 7월 23~27일), 대만문화창의박람회('26년 8월) 등

보안감시솔루션

- 선정사유**
- 라이칭더 정부의 '5대 신뢰산업' 중 하나이자 글로벌 공급망 내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 확대
- 경쟁동향**
- 대만 정보 보안 산업 생태계는 분야별(SW 개발사, 리셀러, 유통사, 시스템통합업체, 컨설팅업체 등) 서비스 공급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나, SW 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 제품이 시장을 주도*
 - * 한국 제품·서비스에 대한 지명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공공기관, 핵심 인프라 관련 입찰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명시적 또는 실질적으로 중국 브랜드·제품을 배제하고 있음
- 진출방안**
- 수요* 기반 타겟팅 전략 수립
 - * 위협 탐지·대응 통합 솔루션을 선호하는 추세 속 특정 분야 특화 솔루션 수요도 존재
 - 고객 기반, 기술력 갖춘 시스템통합업체(또는 중간 유통업체) 선별*
 - * 현지 엔드유저는 장기적으로 신뢰관계를 쌓아온 시스템통합업체, 중간 유통업체와 거래를 선호하는 편
 - 시스템통합업체와 엔드유저가 기존 제품·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경쟁 우위, 핵심 가치) 제시

진출방안

-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기술 교육, 마케팅 자원 공유 등), 기술 지원과 AS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지화 전략 마련
 - 현지 전시회*를 통한 잠재 파트너·고객 발굴
- * CyberSec('26년 5월 5~7일), Secutech('26년 4월 22~24일)

디지털 의료·헬스케어

선정사유

- 인구 고령화 추세로 헬스케어·장기요양 수요 지속 확대 전망
 - '26년부터 '재택의료기술 비전 및 실행계획'* 추진, '건강 데이터 서비스' 분야 민관합동법인 설립**도 추진 중
- * 수요 기반 제품·서비스 개발 장려, 과학기술 기반 재택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첫 해에는 10억 대만달러 예산을 투입해 낙후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
- ** △ 혁신 의료기기·의료기술 △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 분야 등을 지원하고, 축적된 의료 데이터와 AI 응용 서비스 활용 기반 글로벌 기업 유치·협력을 촉진할 방침

경쟁동향

- 의료기기 기업, AI 기술 개발업체, 의료기관이 삼자 협력 방식으로 의료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대만 주요 ICT제품 개발·생산 기업들도 의료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의료 분야 사업 확장을 추진

진출방안

- 진입장벽이 높은 의료 시장 특성상 현지 네트워크와 실적을 갖춘 바이어를 선별 발굴하고 파트너를 통해 현지 하드웨어 제조사,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 마련
 - 하드웨어 제조 분야 경쟁은 회피. AI·소프트웨어 서비스 측면의 틈새시장*에 접근
- * 대만 의료 AI 시장 '23~'30년 연평균 성장률 17.3% 전망(Digitimes Research, '24년 7월 발표)
-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솔루션으로 시장 내 신뢰 확보
- * △ 의료용 SW 분류·등급 참고 지침 △ AI·머신러닝 기술 기반 의료기기 SW 검사등록 기술 지침 △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지침 △ 병원 개인정보파일 보안유지계획 시행규칙 등



'26년 대만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시장진출 지원	• 대만 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 - 내용 : 현지 유통채널 협력 바이어와 1:1 화상상담 주선·지원	연중/타이베이
	• K-관광 융복합 사업 - 내용 : 쇼케이스존 설치·운영, 이벤트존 부스 참가 지원	상반기/타이베이
	• K-뷰티 엑스포 타이완 - 내용 : 한국관 설치·운영, 한국 기업-바이어 간 1:1 상담 주선	8월/타이베이
	• 세미콘 타이완 - 내용 : 한국관 설치·운영, 한국 기업-바이어 간 1:1 상담 주선	9월/타이베이
투자 유치	• 한국 투자유치 설명회 - 내용 : 한국 투자 관련 주요 법령정보 및 투자환경 안내	상·하반기/타이베이
취업 지원	• 대만 취업 온·오프라인 설명회 - 내용 : 구인기업-구직자 간 서류·면접 전형 주선·지원	상·하반기/타이베이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지방선거	11월	12월 25일 취임(임기 4년)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탄소부담금 징수 시작	5월	대만형 CBAM도 '26년 중 시범 도입 예정
'27년 예산안 발표	7~8월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타이베이반려동물용품박람회(Pets Fair)	1월 16~19일	하반기(9월 4~7일)에도 개최
타이베이국제도서전(TiBE)	2월 3~8일	
스마트시티전 (Smart City Summit & Expo)	3월 17~20일	가오슝 동시 개최(3월 19~21일)
타이베이국제자전거전 (Taipei Cycle)	3월 25~28일	대만국제스포츠·피트니스전(TaiSPO) 동시 개최
타이베이국제영유아·임산부용품전 (Taipei Baby&Mommy Expo)	4월 3~6일	5월 29일~6월 1일, 10월 8~11일에도 개최
360° 모빌리티 메가쇼 (360° Mobility Mega Shows)	4월 14~17일	타이베이국제자동차부품전(Taipei AMPA), 대만국제스마트모빌리티전(E-Mobility Taiwan), 타이베이국제자동차전장전(AutoTronics Taipei) 병행 개최
대만국제선물용품·문구박람회 (DG Taiwan)	4월 16~19일	캐릭터IP 라이선싱 테마관 운영
대만사이버보안대회(CyberSec)	5월 5~7일	
타이베이국제컴퓨터전 (COMPUTEX Taipei)	6월 2~5일	스타트업 특화관인 이노백스(InnoVEX) 별도 운영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타이베이국제식품전 (FOOD Taipei)	6월 24~27일	타이베이국제식품가공기계전(Foodtech Taipei), 대만국제호텔·외식주방설비용품전(Taiwan HoReCa), 대만국제포장공업전(Taipei Pack) 동시 개최
대만국제의료·헬스케어전 (Medical Taiwan)	일시(잠정)	비고
타이베이반려동물용품전 (Pets Show)	6월 25~27일	
고령건강산업박람회 (Healthy Ageing Tech Show)	7월 3~6일	타지역 순회 개최(타이중 5월 15~18일, 가오슝 4월 10~13일, 12월 11~14일)
타이베이국제미용전 (Beauty Show)	8월 7~9일	
타이베이국제자동화공업대전 (Automation Taipei)	8월 14~17일	한국미용전(K-Beauty Expo) 병행 개최
대만국제반도체전 (SEMICON Taiwan)	8월 19~22일	대만로봇·스마트자동화전(TAIROS) 동시 개최
대만스마트농업위크 (Taiwan Smart AgriWeek)	9월 2~4일	
대만혁신기술박람회(TIE)	9월 8~10일	대만국제어업산업전(Aquaculture & Fisheries Taiwan) 동시 개최
타이베이국제돌봄박람회 (Cares Expo Taipei)	9월 17~19	
타이베이방직전(TITAS)	10월 1~3일	
대만국제에너지위크 (Energy Taiwan)	10월 6~8일	
타이베이국제전자산업과학기술전 (TAITRONICS)	10월 14~16일	대만국제넷제로전(Net-Zero Taiwan), 대만국제워터위크(TIWW) 동시 개최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채선영	차장	타이베이무역관	+886-2-2725-2324	sychae@kotra.or.kr
2	유기자	연구원	타이베이무역관	+886-2-2725-2324	liuqizi@kotra.or.kr

2026 대만 진출전략



ISBN : 979-11-402-1495-2 (95320)